

# 김관영 무소속 출마...지사 선거 '격동'

## 국민의힘 양정무, 도지사 출사표 "경제의 땅 전북' 만들 것"

**제명 후 명예회복 승부수 던져  
 "특검 기소시 정계은퇴" 배수진  
 도민추대 명분 출마 선언 임박  
 민주당 '뒤통' 흔들 변수 부상**

대리비 지급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전직 제명된 김관영 도지사가 오는 6·3 지방선거 무소속 출마를 통해 명예회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평소 0.01%의 가능성만 있으면 무엇 이든 도전해 해온 김 지사는 사실상 무소속 출마를 결심하고 7일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김 지사는 지난 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특검 기소시 정계은퇴라는 배수진을 친 뒤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억울하게 제명돼 공천을 받지 못한 만큼 도민에게 직접 심판을 받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도민추대 후보'를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도청 주변에서는 이미 출마채비를 마쳤다는 견해가 4~5일 전부터 확고히 전해졌다. 다만 4월 말 특검 출석과 5월 초 경찰조사를 앞두고 공식 출마발표를 늦췄다.

민주당 '뒤통'인 호남에서 현재 도지사의 무소속 출마는 이례적인 상황으로 향후 전북지사 선거 판세가 크게 격동

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지사 측은 자체 여론조사와 외부 여론조사 결과 등을 놓고 불매 득표력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전북 도민 민심의 향배가 판세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정 4년 성과와 현직 프리미엄, 제명 과정의 차별 논란, 동정표 등이 가세하면 무소속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특히 '김관영 도민후보 추대위원회'는 4일 전북도의회에서 김 지사의 무소속 출마를 강력 촉구했고, '정청래 사당화 저지 범도민대책회의'는 온라인을 통해 '응답하라 김관영 도지사 출마 촉구 범도민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정청래 사당화 저지 범도민대책회의는 앞서 1일 이원택 민주당 도지사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때도 정청래 퇴진 시위를 벌

이기도 했다. 한편 지역정가와 여의도, 청와대 일원에서는 이번 김관영 도지사의 무소속 출마를 8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명·청 대리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전당대회에는 정청래 당대표를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이번 재보궐 당선시 송영길 전 의원 등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장정철 기자



"아이들과 함께"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5일 어린이장의체험관에서 열린 어린이날 대축제에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어린이들과 소통하고 있다. <사진=전북자치도>

**"똑같은 선택에 다른 미래 없어"  
 기업유치·주거지원 공약 제시  
 청년채용 인센티브 확대 약속**

양정무 전 국민의힘 전주시장 당협위원장인 양정무 전 국민의힘 전주시장 당협위원장이 6일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양 전 위원장은 최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의 운명을 바꾸겠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간절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 똑같은 선택을 반복하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북의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세 가지 약속을 제시한 뒤, 기업 유치와 주거 지원, 투명한 도정 등을 내걸었다.

그는 "전북을 기업이 물려오는 경제의 땅으로 만들고 기업을 찾아가 설득해서 우리 지역으로 모셔 오겠다. 탄소와 재생에너지, 농생명 산업을 키워 전북을 대한민국 경제의 당당한 중심으로 세울 것이다"며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과



양정무 예비후보는 최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 전북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격적인 인센티브를 약속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등도 함께해 힘을 실어줬다.

양정무 예비후보는 전주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했으며 국민의힘 전주갑 당협위원장과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전북지역협의회 회장 등을 지냈다. 현재는 랭스필드 회장을 맡는 등 왕성한 정치, 사회 활동을 하고 있다. /장정철 기자

## 전북도, 2차 공공기관 이전 총력 맞춤형 전략 고도화

**제4차 이전 대응 전략회의 개최  
 실국별 대응·추진상황 공유**

전북도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 실국별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체계 고도화 방안을 모색했다.

도는 4일 도청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제4차 전략회의'를 열고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추진 동향과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의 유치 활동 결과를 토대로 실국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거·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과 산업 연계 기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기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유치 전략을 구체화하고 실국 간 협업을 통한 통합 대응체계 강화 방안도 검토됐다.

특히 금융·농생명·첨단산업 등 전북의 핵심 산업과 연계한 기능 중심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고, 기관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전략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4월 1일 범도민 유치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도민 공감대 확산과 범도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후 전 실국 일제 출장을 통해 유치 희망 기관을 직접 방문하고, 중앙부처 간담회 대응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유치 활동을 병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기관별 동향을 면밀히 파악한 뒤 지역 여건을 적극 설명하고 기관 측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인 접근을 이어왔다. 전략회의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대응 방향을 정비해 왔다.

특히 이전 대상 기관들은 주거·교육·보육이 결합된 정주환경과 산업 연계 기반, 교통 접근성 등 실질적인 이전 여건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이 같은 현장 수요를 반영해 대응 전략을 단계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2면에서 계속>

## 경찰, '이원택 식사비 대납' 의혹 김슬지 도의원 소환 조사

**김 의원 "업무비·사비 사용" 해명**

김슬지 도의원이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 식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 경찰조사를 받았다.

5일 전북경찰청과 정지권 등에 따르면 3일 김슬지 도의원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전북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조사를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말 정읍 모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식사비 72만여원 중 일부를 지불, 함께 참석했던 이원택 후보 대신 주류, 식사비 비용을 지불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고발당했다.

김 의원은 "참석자들에게 당초 돈을

건어 결제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마땅치 않아 업무추진비와 사비 등을 썼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원택 후보 역시 "보좌진을 포함해 식사비 15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했다"며 주류, 식사비 대납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슬지 도의원 조사를 최종 마치는대로 이원택 후보에 대한 직접 수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장정철 기자

## 박지원 '세대교체 상징' 급부상 군산김제부안 보궐 핵심 변수로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중 이원택 국회의원이 도지사 경선후보로 확정된 군산김제부안을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최고위원 카드가 급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세대교체론'을 내세운 가운데 박 최고는 지난해 9월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처음 도입된 전국 평당원 최고위원에 전 당원 투표를 거쳐 선출되는 기염을 토했다. 그는 정 대표의 역점 사업인 '1인 1표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데 기여했고, 당원주권정당특별위원회장 자격으로 전국 당원 간담회를 열고 여론을 적극 수렴했다. 최고위원이 된 이후에도 박

최고는 전국을 돌며 현장 최고위에 매번 참석하는 열의를 보이고 있다. 1987년생인 박지원 최고위원은 전주 상산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재원으로 2006학년도 수능 전국 수석 출신이다. 대학 졸업 후 고향인 전주에서 다지원 대표 변호사로 활동했다. 특히 그는 '김제의 사위'인 데다 김제시 고문 변호사를 역임, 김제와 인연이 남다르다.

/장정철 기자



김슬지 도의원



박지원 최고위원

**JBT**  
 전북 타임스신문

# Jeonbuk Times

YOUR WINDOW TO THE WORLD, OUR FOCUS ON JEONBUK

<https://www.jeonbuktimes.co.kr> 광고문의 282-9601 기사제보 282-9603 구독신청 282-9600

# 금융사 몰리는 전북...공공기관 유치 필요성 확대

### 국내 4대 금융그룹·글로벌사 전북 혁신도시에 거점 구축 국민연금 중심 자산운용 집적 KIC·공제회 등 이전 기대감

국내 4대 금융그룹과 블랙록·알리안츠·골드만삭스·페블스톤 등 글로벌 금융사가 전북에 거점을 구축하기로 하면서 제3 금융중심지 완성을 위한 공공 금융기관 유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도에 따르면 KB금융그룹은 5개 계열사 380여 명 규모의 'KB금융타운'을 조성 중이며, 신한금융그룹은 자산운용·자본시장 허브를 출범시켜 300명 이상을 배치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은 5년간 1조 6,000억 원 규모의 자금 공급을, 하나금융그룹은 자본시장 핵심 기능을 집약한 '원·루프 센터' 신설을 각각 발표했다. 4대 그룹 모두가 전북에 실질적 기능을 배치한다는 점에서 민간 금융 생태계는 사실상 가동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

민간 금융사가 전북으로 집결한 핵심 이유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다. 세계 3대 연기금이 전북에 위치해 자산운용사들의 투자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민연금은 현재 4대 금융그룹과 협력 거점 구축을 추진 중이며, 지역 산업 연계 투자 확대도 기대된다.

전북이 유치 대상으로 검토하는 기관은 한국투자공사(KIC), 9대 공제회, 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등이다.

이들이 국민연금과 함께 전북에 집적되면, 자금 조성·운용·투자·환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실현될 수 있다. 현재 전국에 분산된 공적 자산운용 기능이 한 지역에서 공동투자·정보공유·리스크관리 협력체계로 통합될 경우, 운용 효율성과 수익성 제고는 물론 국가 전체의 자산운용 경쟁력 강화에도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공공과 민간이 함께 작동하는 자산운용 클러스터가 형성되면 수도권에 편중된 국가 금융 구조를 분산하는 동시에, 전북을 중심으로 한 자생적 투자 생태계가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관별 연계 효과도 뚜렷하다. KIC가 이전하면 국민연금(NPS)과 국부펀드(KIC)가 실질적으로 협업하는 국내 유일의 자산운용 클러스터가 완성된다. 9대 공제회가 집적되면 공동투자·정보공유 등 공적 자산운용 역량이 한 단계 도약하고, 단순 이전을 넘어 국가 자산운용 체계를 재편하는 구조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중소기업은행은 농생명·재생에너지·이차전지·모빌리티 등 산업 전환이 동시에 진행 중인 전북의 정책금융 수요와 맞물려, 국민연금 투자·정책금융·민간투자도 이어지는 자금 공급 체계 완성에 기여할 수 있다.

농협중앙회는 농촌진흥청·국가식품클러스터 등이 밀집한 전북에서 농업금융과 유통 기능을 현장 중심으로 실증하고 전국으로 확산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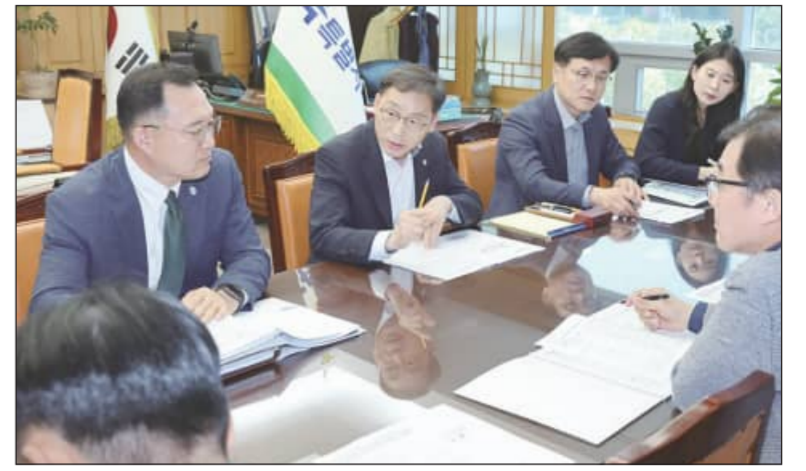
전북은 금융에 그치지 않고 인근 산업과의 연계까지 내다보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9조 원 투자로 속도를 높인

이차전지·모빌리티 산업, 농촌진흥청 중심의 농생명 R&D, 완주·새만금의 수소 인프라와 금융 투자 기능이 결합하면 금융·농생명·첨단산업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복합 산업 생태계 구현이 가능하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금융 기능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미 연기금과 민간 금융 인프라가 갖춰진 전북은 정책 방향과 가장 부합하는 이전 최적지로 꼽힌다. 금융중심지로 지정될 경우 세제 혜택과 제도적 기반이 확충돼 이전 기관의 안착을 뒷받침하고, 민간 자산운용사의 추가 유입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통령과 전북도, 국민연금공단의 의지, 민간의 신뢰가 맞물린 지금이 금융중심지 지정의 골든타임"이라며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지면 전북은 단순한 금융 집적지를 넘어 투자와 생산이 연결되는 지역 산업 성장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사진=전북도>

<1면에서 이어서>

5월부터는 도정 지휘부가 주요 공공기관 및 중앙부처를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대응에 나서는 등 유치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중앙부처 정책 방향과 긴밀히 연계하면서 실질적인 이전 여건을 지속 개선하고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전방위 대응도 이어갈 방침이다.

이에 대해 노홍석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그간 축적한 현장 대응 경험과 기관별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전북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더욱 구체화해 나가겠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 실국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 도, 소규모 농경지 국가지원 근거 마련...국비 확보 본격

### 지원 기준 50만㎡→30만㎡ 완화 배수시설 확충·재해 대응 기대 국비 확보 중앙부처 협의 강화

전북도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소규모 농경지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가 마련, 관련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협의를 본격화한다고 5일 밝혔다.

농어촌정비법 개정은 2026년 3월 10일 공포되어 9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지원 대상 기준이 기존 수

혜면적 50만㎡ 이상에서 30만㎡ 이상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30만㎡ 이상 50만㎡ 미만 구간에 대해서도 국가 재정 지원이 가능해지는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자치도는 향후 정부 예산 반영과 국비 확보를 위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국비가 반영될 경우 지방비로 추진되던 소규모 농경지 정비사업의 재정 구조가 개선되고, 사업 추진 여건도 한

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배수로, 배수문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이 확대되면서 농경지 침수 피해 예방과 재해 대응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도는 제도 시행에 앞서 소규모 농경지 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2024년부터 수혜면적 50만㎡ 미만 농경지 대상으로 지방비 285억 원을 투입해 25개 지구, 516만㎡ 규모의 배수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2026년에는 수혜면적 50만㎡ 이

상 농경지를 대상으로 국비 600억 원을 투입해 56개 지구, 7,484만㎡ 규모의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생산기반 확충과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소규모 농경지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향후 국비 확보가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 전북도, 어린이날 '체험 대축제' 성황리 개최

### 어린이창의체험관서 진행 6개 테마존 67개 체험 운영

전북도는 5일 어린이창의체험관에서 제104회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날 대축제'를 개최했다.

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 참여해 창의·체험·웃음이 어우러진 이날 행사는 전북어린이국악관현악단 공연으로 막을 열었다. 이어 김관영 도지사의 기념사, 이명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의 축사가 진행됐으며 어린이들과 함께한 기념 퍼포먼스로 본행사가 시작됐다.

특히 어린이 4명이 직접 아동권리헌장을 낭독하는 순서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어린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어른들과 함께 아동권리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대축제는 ▲즐거GO(협동 킥쌓기 놀이, 탁구공 빙고 계란판 놀이, 가

상 스포츠 대회 등) ▲꿈꾸GO(터블북 미로탈출 대작전, 로봇해양구조대, 머지뷰로 만나는 증강현실 등) ▲체험하GO(체험관 내 상설체험시설) ▲웃GO(키다리베베로, 얼굴공방 등) ▲알아보GO(도내 유관기관 프로그램) ▲공연보GO(뮤지컬 갈라쇼, 인형극, 미술공연 등) 등 6개 테마존, 총 67개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어린이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는 다채로운 구성에 참가자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도는 행사 당일 인파 집중에 대비해 ▲사전 시설 안전점검 ▲안전요원 및 군차 배치 ▲부스별 인원 제한 ▲우천 대비책 등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를 가동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뛰놀고 꿈을 키워가는 전북을 함께 만들어 가자"며 "모든 아이들이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정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 전북선관위, 12~16일 거소투표 신청 접수

### 전입신고 12일까지 마쳐야 선거공보 신청 서면·온라인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전북도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12일부터 16일까지 신체의 중대한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거소투표신청,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 등은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서면·인터넷으로 신고·신청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이와 동시에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12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또 거소투표신청을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합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이다.

거소투표신청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우편으로 신고하는 경우 가급적 우편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15일까지 우체국에 접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16일 오후 6시까지 신고서가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거소투표신청서 서식은 구·시·군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와 구·시·군청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전북선관위는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거나 대리로 거소투표하는 행위,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예방·단속을 실시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철저히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 박지원·조정식·김태년 국회의원 경선 '파전'

제22대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 박지원·조정식·김태년 후보가 등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국회의장 단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민주당 몫 차기 국회의원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박지원 의원 등 3명의 후보가 입후보 했고, 기호 추천결과 1번 박지원, 2번 조정식, 3번 김태년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여당 몫 국회의원 선거에는 남인순 의원과 민홍철 의원이 기호 1번과 2번 후보로 각각 추천됐다.

앞서 원내대표 경선에는 전북출신 한병도 의원이 단일후보로 입후보 한바 있다.

민주당은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20%)를 실시하고, 오는 13일에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80%)투표를 실시해 당선자를 선출할 예정이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 4일 제22대 국회의원 의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일 잘하는 K-국회, 대통령께서 걱정 안하시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회, 행정, 정보, 남북관계에서 검증된 박지원의 경험과 경륜, 정치력, 능력을 다 바쳐서 대한민국의 의정 역사상 최고의 명품 국회 만들것

다"며 "아직도 내란 세력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진짜 대한민국으로 가는 개혁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은 3·15 부마항쟁, 5·18 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는 최소한의 개헌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공약은 ▲검찰개혁·사법개혁 선제적 정비 ▲의원 및 상임위 지원 등 '일 잘하는 K-국회' 만들기 ▲의원외교·국회 특사 강화 ▲국회미래특별위원회 설치 등이다.

/서울=김영목기자

# ‘2026 대한민국 전주정원산업박람회’ 순항

5월8일부터 12일까지  
월드컵광장덕진공원 개최

전주시가 제6회 2026 대한민국 전주정원산업박람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 4일 우범기 전주시장은 박람회 공간인 덕진공원을 찾아 박람회 준비 상황에 대한 최종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덕진공원에 조성된 작가정원과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어 기업정원 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추진했다.

박람회 관련해 덕진공원 내 열린광장과 산책로 일대에 조성되는 정원은 총 10개소로 이 중 현재 총 6곳의 정원이 완성됐다.

코리아가든(5개소)은 ‘기후변화 위기·한국 전통정원’을 주제로 공묘·심사를 거쳐 조성됐다.

서울시 교류 우호정원(1개소)은 ‘소요도호서울, 전주에서 서울을 거닐다’



전주시가 ‘제6회 2026 대한민국 전주정원산업박람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사진=전주시>

라는 주제로 서울 종로구 낙산공원 성곽의 한양도성을 형상화한 정원으로서 조성돼 시민들에게 전통성과 수변경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인상적인 공간을 선보일 수 있게 됐다.

또 현재 마무리 작업 중인 기업동행 정원 4개소(전북현대모터스, 포스코이앤씨, 전북은행, 대자인병원)까지 모두 완성되면 덕진공원 일대는 시민힐링과 정원문화 체험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거듭나게 된다.

‘2026 대한민국 전주정원산업박람회’는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월드컵광장과 덕진공원 등 전주시 일원에서 펼쳐진다.

올해는 덕진공원과 도시 전역으로 확대해 곳곳에 정원을 조성함으로써 전주시 전체를 하나의 정원도시로 재편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올해 ‘산업박람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정원 조성부터 홍보까지 다양한 분야 시민참여를 통해 시민이 기획하고 가꾸는 ‘공동체 정원 문화’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작가정원 조성이 마무리되었고 기업정원도 막바지 공정에 들어간 만큼,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챙기겠다”면서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통해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정원도시 전주를 구축해 가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 제104회 어린이날 ‘아이들 웃음소리’ 가득

‘전주 어린이날 행사’ 개최

‘제104회 어린이날’을 맞아 전주 시청 앞 노송광장이 미래 주역인 아이들의 환한 웃음소리로 가득 채워졌다.

전주시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전주시민과 아동과 부모 등 시민 3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04회 어린이날 기념식 및 전주 놀이주간’ 행사를 개최했다.

명품태권도 시범과 케이팝(K-pop) 댄스 공연 등의 식전 공연으로 문을 연 이날 기념식에서는 건강하고 바르게 생활하는 모범 어린이와 아동의 권리보호 및 어린이 현장 감독과 개막 퍼포먼스 등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는 모

범어린이 16명(도지사 2, 시장14)과 아동복지유공자 8명 등 총 2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어린이 대표 2인이 ‘어린이 현장’을 낭독했으며, 아이들의 꿈을 담은 소망 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로 행사의 막을 올렸다.

이날 어린이날 행사에서는 모든 시민이 즐길 수 있도록 △놀이마당 △직업 체험 부스 △체험·홍보 부스 △부대행사(마술쇼, 버블쇼, 풍선쇼) △게릴라 이벤트 등이 풍성하게 진행됐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행복한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전주시가 끝까지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라며 “어린이날을 맞아 우리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쌓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 이팝꽃향 가득한 전주시 팔복동 철길 봄 축제 마무리

먹거리·체험·공연·전시 어우러진  
상생형 축제로 운영

전주시가 팔복동 이팝나무 철길 일원에서 진행한 ‘2026 전주시이팝나무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시는 지난달 25일과 26일,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총 5일간 팔복예술공장 주변 북전주선 일원에서 펼쳐진 ‘2026 전주시이팝나무축제’에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아오면서 전주를 대표하는 봄 축제로 자리매김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시는 한국철도공사 등과 협력해 매년

봄 이팝나무축제 기간 평소 출입이 제한된 이팝나무 철길을 시민과 관광객에게 한시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팔복예술공장 인근 임시무대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장, 시·도의원, 경제단체 및 지역단체 대표, 시민과 관광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개막식이 펼쳐졌다.

이날 개막식은 차오름 밴드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행사 안내 및 개회 선언, 내빈 소개, 전주시장 환영사, 축사, 개막 세러머니,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매직쇼와 혼성듀엣 공연이 이어

졌으며, 주요 참석자들은 행사장 부스와 팔복예술공장 일원을 둘러보며 축제 현장을 함께 즐겼다.

특히 축제 기간 행사장에는 음식부스와 문화체험·판매부스가 운영됐으며, 버스킹 공연과 마술쇼 등 다양한 문화 행사도 펼쳐져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또한 팔복예술공장에서 열린 마르크 사갈 개인전과 연계해 축제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이팝나무 철길 산책과 전시 관람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안전한 축제 운영을 위해 행사장

주변에 안전요원과 안내 인력을 배치하고, 방문객 동선 안내와 교통관리, 현장 안전관리에 힘썼다.

또 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협조로 임시주차장을 확보해 방문객 편의를 높였다.

전주시이팝나무축제는 지난 2024년과 지난해 약 8만 명이 방문하며 전주의 대표 봄축제로 자리매김했으며, 올해도 지역 특색을 살린 철길 개방과 문화 행사, 지역 기업·단체가 참여하는 부스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형 축제 기반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혜민 기자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북대병원 ‘최우수기관’ 선정

최우수 환자보호자입원환경 제공

‘2025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에 전북대병원이 최고 등급인 ‘최우수기관’ 선정 영예를 안았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개인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 인력이 24시간 입원 환자를 돌보는 제도다.

아울러 환자와 보호자에게 간병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입원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평가는 서비스 운영 질적 향상을 위해 △환자 안전 △간호 서비스 수준 △운영체계 적정성 등 다양한 항목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성과평가는 다각적인 지표를 활용해 평가점수에 따라 총 5등급으로 산정된다.

전북대병원은 모든 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최고등급인 S등급을 획

득하며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입증했다. 특히 최우수기관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관할 내 의료기관 중 전북대병원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에 전북대병원 측은 24시간 전문간호인력 최상의 서비스 제공이 대외적으로 인정됐다.

전북대병원은 2016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한 이후 단계적인 확대와 운영 안정화를 통해 서비스 기반을 구축해 왔다. 한편 전북대병원은 지속적인 질 향상과 서비스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공공의료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2025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했다.

/김영태 기자

## 전주시 2026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14만 7156필지 개별공시지가 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전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14만 7156필지(완산구 6만8218필지, 덕진구 7만 893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9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올해 전주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

비 1.81%(완산구 1.80%, 덕진구 1.81%) 상승했다.

전주시 평균지가는 1㎡당 20만7500원(완산구 21만7000원, 덕진구 19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최고지가는 완산구 고사동 35-2번지(상업용) 옛 현대약국 토지로 1㎡당 680만4000원, 최저지가는 완산구 대성동 산 59-15번지 임야로 1㎡당 873원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과 부동산공

사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등을 이용해 열람하거나, 완산·덕진구청 민원지적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의견 가격과 이의신청 사유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완산·덕진구청 민원지적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 부동산공사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

출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조사한 뒤,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와 ‘현장설명제’를 운영하고 있다.

/정혜민 기자

## 전주시 ‘HPV 예방접종’ 12세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

여성 중심에서 남녀 공통 접종 전환  
집단면역 형성·암 예방 강화 도모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진선)는 오는 6일부터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국가 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기존 12~17세 여성 청소년과 18~26세 저소득층 여성에서 12세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그간 여성에게 국한되었던 예방접종 혜택을 남성 청소년에게도 동일하게 제공함으로써 성별에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는 관련 질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HPV는 자궁경부암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생식기 사마귀와 항문암, 구인두암 등 심각한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2014년 출생 남성 청소년은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HPV 4가 백신을 6개월 간격으로 2회 무료 접종받을 수 있다.

2014년생이 올해 2회 접종을 완료하지 못했어도 내년에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 가능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혜민 기자

## 전북소방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화재위험 사전 차단

전북소방본부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본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따라서 다수의 도민이 이용하는 투·개표소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대책은 도내 투·개표소의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신속한 초기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오는 6월 3일까지 도내 선거관리위원회 16개소와 개표소 15개소, 사전투표소 243개소, 투표소 557개소 등 총 831개소를 대

상으로 추진된다.

관련해 전북소방본부는 투·개표소 현장방문을 통해 관계자 대상 화재안전 컨설팅을 실시해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한다. 관서장과 부서장이 주요 투·개표소를 직접 방문해 종사자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공사가 진행 중인 장소에 대해서는 본투표일과 사전투표일에는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 작업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또 투·개표소 815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해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

고,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아울러 소방서와 선거관리위원회, 지자체,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 협의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다.

정전 상황에 대비해 비상발전기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선거종사자 안전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선거일 전후에는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고, 개표소 등 주요 장소에 소방력을 근접 배치하는 한편 예방순찰을 강화해 유사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출동체제를 확립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 전주덕진경찰 어린이날 체험행사 운영

전주덕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5월 5일 제104회 어린이날 전북어린이날의 체험관에서 ‘아동 실종예방’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 및 사회적약자보호’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경찰홍보부스는 △아동 대상 지문 등 사전등록 △어린이 경찰체복 입어보기 △아동학대예방 풍선 및 가정폭력예방 컬러링북 선물 등 어린이를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해 운영했다.

이에 덕진경찰들은 더욱 친근한 경찰 이미지 제고 및 사회적약자보호 홍보에 기여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 활동을 실시했다. 나아가 아동학대 예방 위한 메시지 담은 배너 활용 등의 홍보 활동을 펼치며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정소민 기자



## 전주덕진소방서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전주덕진소방서는 봄철 산림 인접 지역 화재 예방을 위해 지난 4일 건지산 일대 산불예방 캠페인을 추진했다.

캠페인은 봄철 산불에 의한 대형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봄철은 기온 상승과 함께 대기가 건조해지고 강풍이 잦아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다. 따라서 선제적 예방 활동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연화마을 입구에서 시작하여 건지산 일대를 중심으로 등산로와 산림 인접지역을 순찰하며 화재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홍보를 병

행했다. 주요 활동으로는 산림 인접 지역 내 화재 위험요인 점검과 계도 활동을 중심으로, 가연물 방치 금지 및 주변 환경 정비를 안내했다.

또 배대포초 투기, 쫓불·향초 사용, 음식물 조리 중 지리 이탈 등 일상 속 부주의로 인한 화재 위험성을 적극 알리며 시민들의 자율적인 안전 실천을 당부했다.

아울러 논·밭두렁 태우기 및 쓰레기 소각 금지 등 산림 인접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 행위에 대한 예방 안내와 함께 화재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주의 사항도 병행 홍보했다. 아울러 지역 주민과 등산객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정소민 기자

# 전북TP, 선도기업 성장로드맵 다각적 지원

## 한국그린에너지(주), 재생에너지 관련 국책 사업 최종 선정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는 '전북특별자치도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집중 지원해온 한국그린에너지(주)(대표 신동찬)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하 에기원)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관련 국책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성과는 전북테크노파크가 선도기업 중장기 성장로드맵에 따라 제공해온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초석이 됐다.

전북TP는 그동안 기업 맞춤형 자율 프로그램 등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을 통해 한국그린에너지(주)의 기술 고도

화와 과제 기획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전력계통 문제를 해결할 '동서형 수직 태양광'과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는 '영농형 태양광' 기술 실증을 골자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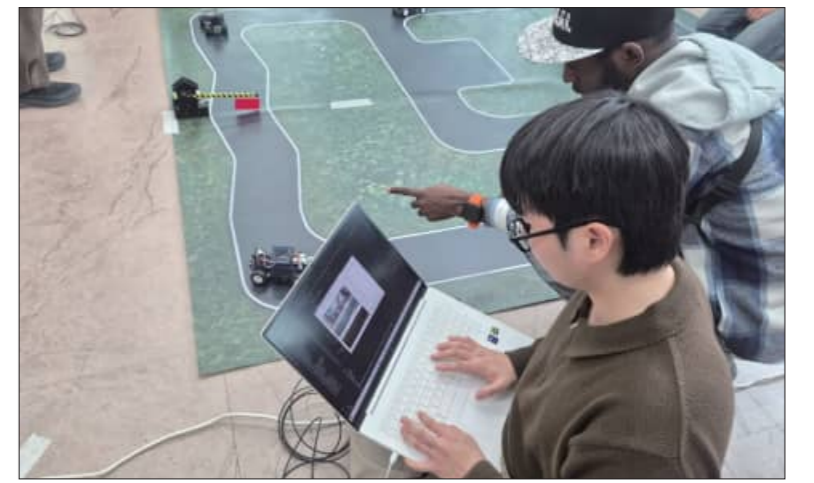
특히 동서형 수직 태양광은 발전 시간을 분산해 계통 부하를 완화하는 핵심 기술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그린에너지(주)는 자체 구조물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최근 5년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2025년 매출 235억원을 달성한 지역 대표 에너지 강소기업이다.

이번 과제 수행을 통해 차세대 태양광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관련 분야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선도기업'은 지역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핵심 단계로, 전북테크노파크는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을 발굴해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할 대표 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 군산대학교 RISE사업단, 인재양성 성과

AI 자율주행 프로그램 성료

국립군산대학교 RISE사업단 '파이선'으로 불리는 AI 자율주행 자동차 프로그램이 성료되며 전문 지역 인재 양성에 성과가 표출되고 있다.

국립군산대학교 '파이선'으로 불리는 AI 자율주행 자동차 프로그램은 Python 기반 인공지능 및 자율주행 기술을 중심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과정이다.

특히 국립군산대학교의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교육은 △AI 및 자율주행 개론 △파이선 기초 프로그래밍 △외곽길을 활용한 자율주행 실습 △딥러닝 기반 객체 인식 및 자율주행 심화 과정 등 단계별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참여 학생들은 실제 주행 실습을 통해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직접 구현하며 현장 밀착형 학습 경험을 쌓았다.

프로그램에서 국립군산대학교 ICC 특성화대학 기계공학부는 실습 중심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방식을 적용했다.

국립군산대학교 RISE사업단은 앞으로 경진대회 및 후속 심화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과제책임자 염금수 교수 ICC 특성화대학 기계공학부는 "이번 프로그램에서 산업계 요구 'AI·자율주행 실무 역량'을 학생들이 직접 체득할 수 있도록 기획한 교육이다"고 강조했다.

염 교수는 이어 "국립군산대학교는 실습 중심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군산대학교 RISE사업단은 산학연 협력 통한 실전형 인재 양성 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고 있다. /김영태 기자

# 경진원, 전북지역 소상공인 100개사 지원

## 중기부 '소상공인 쇼핑몰 판매 지원사업' 선정

전북도와 (재)전북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은 '2026년 소상공인 온라인 쇼핑몰 판매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되며 전북지역 소상공인 100개사를 지원한다.

'2026년 소상공인 온라인쇼핑몰 판매 지원 사업'은 광역자치체 온라인 쇼핑몰

내 지역 소상공인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정부 지원사업이다.

관련해 경진원은 전북 대표 공공쇼핑몰인 전북생생장터(freshjb.com)를 통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에 따라 경진원은 사업을 통해 도내 농특산물 및 우수 제품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발굴해 전북생생장터 내 '로컬상품관'을 운영한다.

특히 최대 30% 할인 프로모션과 기획전을 병행 추진해 소비자 유입을 확대

해 참여 소상공인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 동행축제 및 도내 주요 지역축제와 연계해 행사 현장 내 로컬상품관 상품 전시·판매한다.

아울러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판로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대형 유통사 MD를 초청한 구매상담회를 개최해 대형 플랫폼 및 유통망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등 단계별 판로 확장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로컬상품관 오픈 기념 온라인 기획전 및 할인쿠폰 이벤트 등을 운영해 초기 시장 안착을 지원한다.

전북생생장터를 중심으로는 지역 소상공인 제품의 전국 단위 인지도 제고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2026년 소상공인 온라인쇼핑몰 판매 지원사업'은 판관대로(fanfandaero.kr) 누리집 내 소상공인 판로지원 통합신청을 통해 5월 중 모집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 농진청 '중대재해처벌' 안내문·표준 교안 제작

## 법 적용 대상 등 구성 전국 농촌진흥기관 배포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안내문과 농업 경영주 대상 안전교육 표준 교안을 제작했다.

안내문은 △법 적용 대상 여부 △일용직·외국인 근로자 포함 범위 △농장주의 의무 △중대산업재해 기준 △사고 발생 시 처벌 여부 등 농업인이 현장에서 자주 묻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소규모 농사업장 경영주가 법 적용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 중심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안내하고 있다.

6대 핵심 실천 내용은 △농장 입구 안전보건 활동 방침·내용(근로자 보호, 안전한 환경 조성 등) 게시 △농장 내 주요 작업별 위험 요인 파악 정기적 점검 △작업 전 안전 수칙과 보호장비 착용

기준 안내하기 △위험 요인 관리 방안 수립 및 이행과 개인보호구 지급 △비상연락망, 응급조치 절차, 사고 보고 체계 등 마련 △외부 업체에 일 맡길 때 작업 시 위험 요인 사전 설명 △법정 의무 사항,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등이다.

특히 경영주가 평소 반드시 챙겨야 할 기본적인 점검 사항과 교육, 기록 관리, 비상 대응체계 마련 등 6대 핵심 항목을 담아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게 했다.

농촌진흥청,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공동 제작한 표준 교안은 농업 분야 산업재해 현황, 농업 경영주가 꼭 알아야 할 근로자 보호,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안전 보건관리 체계 구축, 중대재해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실어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농촌진흥청은 안내문을 농업인 단체 등에 배포해 안전 관리 인식 제고에 활용하고, 표준 교안은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농촌진흥기관에



교육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안내문과 표준 교안은 '농업인안전 365 누리집(https://farmer.r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규모 농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농업 분야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다양한 자료도 함께 볼 수 있다.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과 김경수 과장은 "농업인 고령화, 농업 규모화 등

## 국민연금 '계좌변경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국민연금공단은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의 금융범죄로부터 국민연금 수급자 연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국민연금 '비대면 계좌변경 안심차단 서비스'를 오늘부터 시행한다.

안심차단 서비스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모바일 앱, 전화, 팩스, 우편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계좌변경을 모두 차단하는 서비스다.

따라서 제3자가 비대면 채널에서 수급자의 인증서를 이용해 연금 받는 계좌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안심차단 서비스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신청자는 온라인 전화, 팩스, 우편 및 공단 내방 중 원하는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반면 안심차단 서비스 해제와 서비스 이용 중에 계좌를 변경하려면 수급자 본인인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분이 확인된 경우만 처리할 수 있다.

정태구 연금이사는 "이번 서비스는 제3자 등에 의한 명의도용으로부터 수급자 의사에 반하는 계좌 변경을 방지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소중한 연금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국민의 소중한 연금자산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서비스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소민 기자

## 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 '건강관리' 중요성 강조

도민 건강 증진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가 '건강관리 중요' 홍보활동에 구슬땀을 닦았다.

건협 전북지부 임진영 본부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최근 전주시 팔복동 이팝나무 축제장을 찾아 보이는 사람들과 다 건강관리 안내활동을 펼쳤다.

이팝나무 축제는 지난날 25일, 26일 지난 1일과 3일 총 5일간 전주 팔복에 술공장 일원 북전주선 철길에서 운영됐다.

건협 임 본부장은 전주 이팝나무 철길 행사 기간에 따라 발맞춰 방문객 대상으로 건강에 대한 적정 검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했다.

관련해 이팝나무 축제 기간 중 건협 전북지부 임진영 본부장과 임직원들은 검진 안내문 또는 홍보물을 배부하며 건강 관리 중요성을 직접 전달했다.

특히 임 본부장은 "일상 속 건강 관

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필요성을 알렸다.

또 그는 누구나 넘어서기 쉬운 '국가건강검진 수검 절차', '만성질환 예방 위한 정기검진 정보'를 상세히 안내했다.

이 자리에서 임진영 건협 전북지부 본부장은 "현장 소통 행정을 적극 추진해 도민 나아가 국민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 영위를 확대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하얀 이팝나무 꽃과 향기처럼 모두가 행복한 건강 지킴이 확대에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가 앞장 서겠다"고 약속했다. /김영태 기자

## 신협중앙회, 하반기 신입·경력직원 공개채용

신협중앙회가 2026년도 하반기 신입 및 경력직원을 공개 채용한다.

채용은 신입직원과 경력직원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신입직원 채용 분야는 △일반직군(여신지원·관리, 수신지원, 경영지원, 감사·감독, 자금운용, 공제, 기획·총무) △IT직군(IT개발·관리)이다. 경력직원은 △여신직군(여신기획·지원) △공제직군(공제상품개발·지원) △IT직군(IT개발·관리)에서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연령, 학력, 전공 제한 없이 기졸업자 또는 2026년 8월 졸업예정자라면 지원할 수 있다.

IT직군 신입직원 지원자는 정보처리 기사, C·JAVA·SQL·RDB(Oracle/Tibero)·시스템·NW·보안 관련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필수로 보유해야 한다.

IT직군 경력직원은 지원일 기준 IT개

발업무 경력 3년 이상으로, Java 또는 C 프로그래밍과 Oracle DB 및 Unix 서버 기반 개발이 가능해야 한다.

여신·수신직군 경력직원은 각각 금융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여신업무 또는 수신업무 경력 3년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공제직군 경력직원은 보험사 상품개발 업무 경력 3년 이상이 요구된다.

지원서 접수는 지난 4일부터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채용 사이트(cu2.saramin.co.kr)를 통해 진행된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오는 29일 10시 이후 채용 사이트를 통해 발표되며 필기시험은 내달 6일과 7일 양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신입직원은 △실무진 1차 면접 △임원진 2차 면접을 거치며, 경력직원은 △실무진 1차 면접을 거쳐 7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감사한달 특판예금 출시

금리 2.95% ~ 최고 3.15%

전북은행

## 전북은행 '감사한달 특판예금' 출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5월 고객 감사의 의미를 담아 '감사한달 특판예금'을 출시해 오는 29일까지 판매한다.

'감사한달 특판예금'은 12개월 가입 기준 기본 연 2.95% 금리에 우대조건 충족 시 최고 연 3.15%(세전) 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예금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개인 및 일반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이며,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등 기관고객은 제외된다.

가입 금액은 계좌별 100만원 이상으로 고객 당 최대 50억원까지 가능하며 총 판매한도는 1500억원으로 한도 소

진시 판매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우대금리는 최대 연 0.20%까지 제공된다.

예금 가입일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전북은행 수시입출금 계좌 평균잔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연 0.10%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마케팅 동의 시 연 0.10%의 금리를 추가 제공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이번 특판예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전북 초등생, 학년 오를수록 행복지수 '뚝'

## 어린이 생활 조사 결과 10명 중 9명 사교육... 학습 부담·불안감 커

전북 지역 초등학생 대부분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행복지수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도내 초등 4~6학년 1,317명을 대상으로 실시

한 '2026 전북 어린이 생활과 생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0.1%가 정규 수업 이후 방과후 수업이나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6학년 학생의 33.1%는 저녁 8시 이후에 귀가할 정도로 학습 부담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늦은 귀가는 수면 부족으로 이어져, 밤 10시~11시에 취침하는 학생이 40.2%로 가장 많았고 자정을 넘긴다는 응답도 8.5%에 달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도 상당한 수준이었다. 응답자의 93.9%가 스마트폰을

보유한 가운데, 절반 이상(50.4%)이 하루 2시간 이상 기기를 사용한다고 답했다. 하루 4시간 이상 사용하는 비율도 17.2%를 차지했다. 반면 평일에 놀이 시간이 전혀 없다는 학생은 11.3%였으며, 시간이 주어질 경우 '친구들과 놀기(56.7%)'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는 85.3%로 높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평균 행복지수가 점차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했다. 학생들의 주요 고민거리는 '공부 및

성적(35.5%)', '친구관계(22.2%)', '외모(18.3%)' 순이었다. 또한 자신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한 학생은 52%에 그쳐 절반 가까운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오도영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사교육으로 인한 늦은 귀가와 놀이 시간 부족 현상이 여전하다"며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관계 맺기를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성민 기자

## '이리농악', 매달 익산 시민 만난다

10월까지 정기공연

익산시가 국가무형유산 '이리농악'을 시민들의 일상 속 문화예술 콘텐츠로 확장한다. 익산시는 지역 전통문화 계승과 시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이리농악' 상설공연을 운영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리농악은 1985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됐으며 익산(옛 이리) 지역에서 전승돼 온 호남우도농악의 한 갈래다. 상쇠의 부포놀이가 다양하고 장구 가락과 춤, 소고춤 기법과 진풀이가 발달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상설공연은 오늘부터 10월까지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오후 7시, 익산 스포츠문화의 숲 2층 스포스극

장에서 진행된다.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공연 시작 30분 전부터 입장이 가능하다. 좌석은 70여 석으로 선착순 마감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다. 공연은 판굿을 중심으로 비나리, 설장구, 사자춤 등 다양한 연희 요소를 담아 이리농악의 역동적인 매력을 선보인다. 특히 매회 다른 주제로 이리농악의 흐름과 의미를 단계적으로 풀어내고, 전승자의 해석과 시대적 변화까지 함께 담아내 전통예술의 현대적 의미도 전달할 예정이다. 상설공연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 전북체육회, 교육감 후보들 초청 정책 간담회 개최

## 유성동·이남호·천호성, 체육 관련 정책 등 언급

전북 체육인들이 '침체 된 학교 체육을 일으켜달라'며 전북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들에게 요청했다. 지난달 말 전북체육회관에서 '차기 교육감에게 전북체육인이 바란다' 주제로 체육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체육의 초석이자 뿌리인 학교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도체육회가 마련했고 선수와 지도자, 시군 종목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유성동, 이남호, 천호성 등 3명의 교육감 예비후보는 체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체육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체육 관련 다양한 정책 및 공약을 언급하며 자신들이 책임자임을 강조했다. 체육인들은 이날 큰 틀에서 2가지의 체육 정책을 도 교육감 후보들에게 건의·제안했다. 첫번째는 체육특기교사 임용제도 개선으로 체육 교육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연간 2명 이상 확보해달라는 것이다. 두번째는 1학교 1종목 육성으로 도내 학생 수 100명 이상 학교에 학교별 지역 특화종목과 연계, 1종목 의무 육성 및 지원이다. 이에 대해 전북체육회 정강선 회장은 "교육감 후보들께서 체육에 대한 관심이 높으신 것 같다"며 "학교 체육이 활



성화되고 교육청의 체육 정책이 전국에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달라"고 말했다. <사진=전북도체육회> /장정철 기자

## 전북문화관광재단 '예술로 이음' 기업·기관 공모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 '2026 예술로 지역사업(예술로 이음)'에 참여할 기업·기관 모집을 오늘까지 재공모한다고 밝혔다. 예술로지역사업(예술로이음)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며, 기업·기관·예술인 간 확장된 파트너십 기반의 협업을 통한 예술인 직업 안정화 및 예술적·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사업이다. 올해 재단은 총사업비 3억 2천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기업·기관 9개소를 모집해 향후 선정되는 리더·참여예술인과 함께 사사회공헌 및 사회문제 해결 △기업·기관 조직문화 해결 △지역 환경·생태 문제

해결 등의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기업·기관 공모 지원 자격으로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소지 한 예술협업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 및 협조가 가능해야 한다. 이렇게 선정된 기업·기관은 재단이 매칭한 예술인 단체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며, 예술인의 활동비는 재단이 지원한다.신청서 양식 및 공모 내용은 재단 공식 누리집(jbc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오늘 오후 5시까지 이메일(jbct2024@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장정철 기자

# 전북현대, K리그 최초 콘서트형 콘텐츠 선배

## 첫 주자는 잔나비... 오는 17일 무대 올라

전북현대모터스FC가 한국프로축구 K리그 최초로 경기 종료 이후 펼쳐지는 콘서트형 콘텐츠를 선보이며, 스포츠 관람 문화를 한 단계 확장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단순한 경기 관람을 넘어, 전주월드컵경기장을 찾은 팬들에게 축구와 음악이 하나 되는 새로운 차원의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서 기획됐다. 전북현대가 선보일 새로운 컬처 브랜드의 명칭은 'The 3rd Half(더 서드 하프)'라고 밝혔다. 이는 축구 경기의 전반전(1st Half)과 후반전(2nd Half)에 이어지는 또 하나의

45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경기의 열기를 공연으로 이어가며 경기장의 감동을 완결시키는 전북현대만의 차별화된 팬 경험 프로그램이다. 일반적으로 스포츠 경기에서는 하프타임을 활용해 짧은 공연이 진행되는 것이 관례였지만, 전북현대는 이러한 기존 틀을 넘어 경기 이후에도 팬들이 머물며 축제의 여운을 즐길 수 있는 '채류형 콘텐츠'를 준비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6월 월드컵 휴식기를 앞두고 한동안 흥경기가 열리지 않는 점을 고려해 기획됐다. 전북현대는 긴 휴식기 동안 전주성을 찾지 못할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고, 상반기 마지막 흥경기를 승리의 환호와 감동적인 선율이 어우러진 '진한 추억의 밤'으로 만들겠다는 구단의 진심을 담았다.

다만 이는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전북현대만의 고유한 정체성과 결합된 정작시켜, 경기장을 방문하는 팬들이 '축구 그 이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단의 의지 또한 담겨 있다. 'The 3rd Half'의 역사적인 첫 무대를 장식할 아티스트는 그룹사운드 '잔나비'이다. 잔나비는 특유의 감성적인 사운드와 대중성을 바탕으로 폭넓은 팬덤을 보유한 그룹사운드로, 지난해 5월 전주월드컵경기장을 뜨겁게 달군 바 있어 이번 공연 역시 팬들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북현대는 이러한 인연을 바탕으로 잔나비와 다시 한번 손을 잡고, 전주성을 뜨거워 환호와 열광으로 가득 채울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는 오는 17일



열리는 '하나은행 K리그 2026' 15라운드 김천상무와의 흥경기 종료 후 이날 경기의 매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장정철 기자

## 이남호 "교원 행정업무 30~50% 감축하겠다"

이남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가 5일 교원 행정업무를 최대 50% 감축하고 기초학력 진단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교육공동체 3대 약속' 정책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교사의 교육활동 보충을 위해 현장 교원의 행정업무를 30~50% 줄이겠다고 밝혔다. 권역별 학교행정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인공지능(AI) 행정비서를 도입해 교사가 수업과 학생 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학생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는 초등학교 단계부터 '조기진단-조기치방-성장관리' 체계를 구축해 공교육의 책임을 강화한다. /최성민 기자

이와 함께 AI 맞춤형 학습과 전 교과 독서 교육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단순한 성적 향상을 넘어 인성과 사고력, 진로 역량까지 키우는 '학력신장 3.0' 모델을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남호 예비후보는 "아이의 성장은 가정과 학교, 지역이 함께 책임지는 과정"이라며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바탕으로 전북 안에서 배움과 진로, 지역 정주까지 완성되는 통합 교육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 선거홍보물! 인쇄물이 아니라!

## 당신을 위해

# 가장 먼저 준비 해야 할 전략입니다.

6.3 지방선거 ONE-STOP 선거 홍보 제작팀

JP

유한회사  
준테크

전화  
063)226-5888

이메일  
jhchoi3075@daum.net

qp

대흥  
정판사

전화  
063)254-0056~7

이메일  
hi56@hanmail.net

AP

아트인포

전화  
063)251-0987

이메일  
ap0987@daum.net

## 군산시, 오는 11~15일까지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군산시는 지역 내 고용안정과 취업 취약 계층의 생계 지원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하반기 모집인원은 총 115명으로, 공공근로사업 63명과 지역공동체일자사업 5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참여자는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5개월간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은파호수공원 등 다양한 사업장에 배치된다. 임금은 시급 10,320원이며, 부대비 5,000원과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이 별도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 능력이 있는 군산시민으로, 가구소득 및 재산 기준 등 선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저소득층과 장기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접수 기간 내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공정한 심사를 거쳐 6월 말 최종 참여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현현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하반기 사업이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시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국가산단과 주요 관광지 등 시민들의 생활 밀접 지역을 폐쇄하게 관리함으로써 지역사회 활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 정읍시, 어르신 쉼터 '모정'에 안전 디딤돌 무상 설치

정읍시가 마을 어르신들의 안전한 휴식을 돕기 위해 오는 8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모정(마을 쉼터) 안전 디딤돌 설치' 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모정 마루에 오르내릴 때 발생할 수 있는 노약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길이 1.5미터, 높이 20센티미터 크기의 석재 디딤돌을 해당 마을에 무상으로 제공해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돕는다.

시는 지난 2024년 이번 사업을 처음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총 104개 마을에 안전 디딤돌을 설치했다. 시는 주민들의 높은 만족도에 힘입어 올해도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해 약 40곳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오효원 건축과장은 "앞으로 디딤돌 지원 뿐만 아니라 매년 모정 기능 보강과 개보수 사업도 수요 조사를 거쳐 지원할 것"이라며 "마을 모정이 본연의 형태를 유지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 공간으로 제 기능을 다하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군산시, '24시간 혈당관리' 필수 1형 당뇨병환자 지원

군산시 보건소는 책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평생 엄격한 혈당 관리가 필요한 1형 당뇨병환자를 위해 '제1형 당뇨병환자 관리기' 등 구입비 지원사업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군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의사 처방에 따라 기기를 구입해 사용하는 제1형 당뇨병환자이다. 19세 미만은 어린이집 재원 아동, 학적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 관외 학교 재학생 중 관할 교육청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이다. 19세 이상은 건강보험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품목은 △연속혈당측정용 전국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총 3종이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구매한 기기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건강보험 요양비 기준액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단, 타 법령 등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환수 조치 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신규 지원사업이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걱정을 덜고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제갈할 수 있는 맞춤형 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건강 도시 군산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 ‘익산로컬푸드어양점’ 3차 강제 봉인

## 공권력·법치 행정 확립... 안전성 미검증 이용 자제 당부

익산시가 불법 영업을 이어오고 있는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에 대해 지난 4일 3차 강제 봉인 조치를 강행했다. 이는 공공재산 보호와 법치 행정 확립, 그리고 시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정이다.

시는 그동안 어양점의 자진 폐쇄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며 대화를 시도해 왔지만 운영 주체인 로컬푸드협동조합 측이 이를 거부하고 불법 영업을 강행함에 따라, 시는 시설물 전반에 대한 폐쇄 및 봉인 절차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3차 집행에는 기존 매장 시설물뿐만 아니라 식육축산물매장사업

시설까지 포함한 공공시설의 사유화를 완전히 차단했다.

시는 이번 조치가 단순히 행정 명령을 이행하는 수준을 넘어,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보다 강조했다. 현재 어양점은 시의 관리 체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어, 로컬푸드의 핵심인 농산물 안전성 검사나 품질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먹거리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시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들에게 해당 매장의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시는 봉인 이후 감시조를 편성해 상시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시는 어양점 운영 중단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체 판로를 확보하고 있다. 시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농가들의 출하처가 익산농협, 원협, 삼기농

협 등으로 분산되면서 오히려 매출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대체 직매장들의 매출액은 총 25억 1,000만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매출인 16억 8,000만 원보다 약 8억 2,000만 원(48%)이 증가한 수치로, 시의 발 빠른 대체 판로 확보가 농가 소득 보전으로 이어진 성과다.

또한 시청과 익산문화체육센터, 하림 등에서 운영 중인 '상생 장터' 역시 농가와 소비자의 호응 속에 꾸준한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설 봉인은 영업신고 철회에 따른 적법한 행정 절차이자 시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며 "어양점이 하루빨리 정상화돼 농업인과 소비자가 모두 웃을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정읍시, 9일 동학농민혁명기념제 개막

## 11일까지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일원서 개최

정읍시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동학농민군이 첫 승리를 거둔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일원에서 제59회 동학농민혁명기념제를 개최한다.

올해 축제의 구호(슬로건)는 '다시, 사랑이 하늘이다'로 정했다. 여기에는 농민군이 꿈꿨던 만민평등과 자주독립 정신을 되짚고 혁명 도시 정읍의 정체성을 전국에 알리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다.

이번 행사는 9일 오전 공식 제례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이어 전국 농악경연대회, 청소년 토론회, 춤(댄스) 경연대회 등 모든 세대가 어우러지는 프로그램이 전개된다. 농악경연은 평등

세상을 바꿨던 농민군의 울림을 예술로 승화하는 자리다. 청소년 토론회는 미래 세대의 시각에서 혁명을 재조명하며, 춤 경연대회는 승리의 기쁨을 역동적인 몸짓으로 표현해 낸다.

이날 오후 6시에는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그날의 함성'이 펼쳐진다. 정읍 시민과 지역 농악단, 청소년, 문화예술인 등 총 511명이 참여해 1894년 당시 농민군의 기백을 웅장하게 재현한다. 이들은 장엄한 진군 행렬과 플래시몹을 선보이며 행사장의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행사장 곳곳에는 다채로운 체험과 문화 공간이 들어선다. 과거 막목장터를 구현한 구역에서는 먹거리와 불거리를 제공하는 부스가 운영된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벼룩시장(플리마켓) '달빛 장터'를 비롯해 거리 공연, 야간 경관

조형물인 '1894로의 여행'이 방문객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다.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대규모 공연도 기다리고 있다. 9일 기념식 직후에는 손태진, 조재즈, 먼데이키즈, 경서 등 인기 가수들의 화려한 무대가 열린다. 다음 날인 10일에는 허각과 신동재의 노래에 이어 정읍시립국악단의 특별 기회 공연 '천명'이 밤하늘을 수놓는다.

이학수 시장은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과 사람이 하늘이라는 동학의 가치가 이번 행사를 통해 전국민에게 깊이 전해지기를 바란다"며 "정읍시는 혁명 132주년을 맞아 이 위대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도약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익산 서동축제, 성료...10만명 방문

## 도심 퍼레이드 등 체류형 콘텐츠로 지역경제 활력

익산시가 주최한 '2026 익산 서동축제'가 시민과 관광객 10만여 명의 뜨거운 호응 속에 3일간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축제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중앙체육공원과 신흥공원 일원에서 '백제의 숲길, 천년의 사랑'을 주제로 열렸다. 백제 무왕(서동)과 신화공주의 사랑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번 축제는 공연, 체험, 퍼레이드, 야간 경관이 어우러진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방문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행사 기간 중앙체육공원과 신흥공원 일대는 축제를 즐기기에 적합한 수많은 인파로 가득 찼다. 축제장 곳곳에는 가족과 연인, 친구 단위의 방문객들이

모여 익산의 봄을 만끽했다. 올해 서동축제 관광객 수는 10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축제의 열기는 개막 첫날 진행된 '그레이트 썸 퍼레이드'에서부터 뜨겁게 달아올랐다.

야양공원에서 중앙체육공원까지 이어진 대규모 도심 행렬은 시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참여팀 저마다의 개성 있는 퍼포먼스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 플래시몹 공연은 도심 전체를 거대한 축제의 장으로 탈바꿈시켰다.

특히 올해는 실제 커피들의 프로포즈 이벤트 등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 축제의 메시지만 '사랑'을 생생하게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무왕제례, 전국 서동선발대회, 전국 어린이 서동요제, 백제 저자거리, 익스트림존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야간 콘텐츠 강화도 눈에 띄는 성과였다. 중앙체육공원에서 신흥공원까지 확장된 축제 공간에서는 매일 저녁 화려한 레이저 쇼와 경관 조명이 펼쳐져 낮과는 또 다른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는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축제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 동력이 됐다.

시민 기획단이 직접 프로그램 구성에 참여해 주도적으로 축제를 이끌었다는 점 역시 이번 축제가 '시민 주도형 축제'로서 한 단계 성장했음을 보여준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 서동축제는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시의 대표 축제"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콘텐츠와 체류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도시 익산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군산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창구 운영

## 전자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등 다양한 지원

군산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종합소득세(국세)와 동일하게 지난 1월부터 오는 6월 1일까지이며, 신고 대상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이다.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위택스) 신고 이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

편하게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 적용 대상자는 5월 초 발송되는 안내문에 따라 홈택스, 손택스, ARS 등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 세무과 도움 창구 또는 군산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면 신고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성실한 신고·납부가 필요하다.

한편, 세정지원의 일환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규모 사업자, 유가 민감 업종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8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다만, 해당 대상자도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6월 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서정석 세무과장은 "신속하고 편리한 신고·납부를 위해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신고 마감일은 접속이 집중돼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전 조기 신고·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 익산시, 국가예산 확보 '총력'

### 핵심 현안 반영 주력

익산시가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한 대응 활동을 강화하고, 정부 예산안 반영을 위한 후속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 4일 국·소·단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 국가예산 부처 단계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달 세종에서 열린 국가예산 확보 전략회의 이후, 약 3주간 이어진 중앙부처 방문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부처 간 유기적인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각 부처의 반응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추가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시는 그동안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지역 현안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며 신규 사업 및 계속

사업의 예산 반영을 건의해 왔다.

특히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동물용 의약품 바이오 팩토리 구축'과 미래 산업 생태계를 선도할 '가상 융합 산업 기반 조성'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평화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와 오랜 기간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주민 숙원사업인 '동익산역 진입도로 개설'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사업들도 정부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국가예산 확보는 지역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직원들이 직접 발로 뛰어 만든 성과가 실질적인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폭도, 지역 국회의원과의 긴밀히 협력해 끝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군산시, HPV 예방접종 지원 대상 확대

### 12세 남성 청소년까지

군산시보건소는 오늘부터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기존 여성 청소년 및 저소득층 여성에서 12세 남성청소년(2014년 출생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은 12~17세 여성 청소년과 18~26세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과 구인두암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접종 대상이 12세 남성 청소년까지 포함되면서, 남성에게 발생할 수 있는 항문암, 생식기 사마귀, 항문 상피내 종양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HPV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감염될 수 있다"며 "지원 확대된 백신 예방접종을 통해 HPV 감염으로 인한 각종 질환과 암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사진=익산시>

## 익산시, 숲길·공원 야간조명 구축

익산시가 밤에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산책과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오송누리숲길과 신흥공원을 새롭게 단장했다. 익산시는 오송누리숲길과 신흥공원 산책로의 야간 이용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조명 설치를 마무리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오송누리숲길은 송학동과 오산면 일원 장항선 폐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해 조성된 총 7만㎡ 규모, 왕복 약 7km 길이의 도시숲이다. 미세먼지 저감과 열섬 완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조성된 도심 속 녹색공간이다.

시는 시민들이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5억 3,500만 원을 투입해 전 구간 약

3.5km에 블라드등과 열주등, 공원등 등을 설치했다. 신흥공원 산책로도 기존 야간조명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반영해 일부 조도가 부족한 구간을 중심으로 공원등과 보조조명을 추가 설치했다. 보행 집중구간과 어두운 구간의 시인성을 높여 보다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조명 설치를 통해 낮과 밤에도 안전하게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시민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가까이에서 숲과 자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녹색성장도시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정읍시, 어린이 건강·심폐소생술 체험관 운영

정읍시는 이달부터 샘골건강생활지원센터 안에 놀이형 체험과 실습 위주 구성된 '어린이 건강체험관'과 '심폐소생술 체험관'을 조성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시설은 어린이들의 올바른 건강 생활 습관 형성을 돕고 응급 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어린이 건강체험관에서는 신체 활동 놀이형 과정을 시작으로 영양과 식생활 교육, 올바른 손 씻기 체험을 진행한다.

심폐소생술 체험관에서는 기초 이론 교육과 더불어 119 신고 요령, 위기 대응 방법을 익힌다.

또한 실습용 마네킹을 활용한 심폐소생술 체험,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실습이 함께 진행돼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샘골건강생활지원센터 관계자는 "체험관 운영을 통해 어린이들이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능력을 키우고, 생명을 존중하는 의식과 응급 상황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체험관 이용이나 교육 과정 참여는 사전 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샘골건강생활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정인 기자

# 고창·부안, 보물 지정 예고 2(題)

## 고창 선운사 영산전, 보물 지정 눈앞

고창군은 지역의 대표적 사찰 건축물인 '고창 선운사 영산전(高敞 禪雲寺 靈山殿)'이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 지정 보물로 지정 예고되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고창 선운사(高敞 禪雲寺)는 577년(백제 위덕왕 24)에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선운사 영산전은 1474년(성종 5) 2층의 장륙전(丈六殿)으로 조성한 이후, 정유재란(1597)때 소실된 것을 1713년(숙종 39) 2층 각황전(覺皇殿)으로 재건하였으나, 1751년(영조 27) 화재로 다시 소실되어 이듬해 재건하였다. 이후 1821년(순조 21)에 2층 각황전이 타락됨에 따라 단층의 영산전(靈山殿)으로 개축하였다. 선운사 영산전은 이러한 변화과정에 대한 기록이 잘 남아있고, 당시의 중증건물의 부재가 다수 남아있어 역사적 연구 가치가 높다.

은 기둥(고주)을 세워 탁 트인 넓은 공간을 확보했다. 건물 중앙에는 과거·현재·미래를 상징하는 삼세불을, 좌우에는 나한상을 모셔 부처님이 설법하던 웅장한 '영산회상'의 장면을 생생하게 재현해 예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지붕을 받치는 장식은 새의 날개 모양을 한 익공 양식인데, 보통은 장식 사이에 꽃모양 조각(화반)을 넣어 꾸미지만 영산전은 화반 대신 그 빈 공간을 하얀 흙벽이 아닌 특정한 목재를 끼웠다. 이는 다른 사찰에서는 보기 드문 영산전만의 독창적인 특징이다.

김영식 고창군수 권한대행은 "선운사 영산전의 보물 지정 예고는 고창의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결과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보존 관리를 통해 소중한 국가유산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 부안 내소사 설선당과 요사, 가치 인정

부안군은 '부안 내소사 설선당과 요사'가 지난달 30일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부안 내소사 설선당과 요사는 임진왜란 이후 1640년(인조 18)에 내소사를 중창할 당시 건립했으며 1821년(순조 22)에 수리가 있었고 1893년(고종 30)에 요사를 증축한 것으로 승려들 생활공간의 변화 형태와 모습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어 역사적 가치가 크다"고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지정 사유를 밝혔다. 부안 내소사 설선당과 요사는 '모자형 평면으로 설선당은 정면 6칸, 측면 3칸의 맞배지붕이고 전체 '모자형' 중에서 가장 먼저 건립됐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산중생활의 변화에 따라 시간차를 두고 서고동저(西高東低)의 대지 지형 여건과 건물 위계(位階)에 맞춰 남측과 북측 3칸, 동측 6칸을 증축한 것으로 추정된다.

면 2고주 5량가, 내부는 1고주 5량가로 공포는 이익공으로 쇠서는 연봉형 문양을 새기고 외단을 사절했으며 요사의 가구 구조는 무고주 3량가로 공포는 목익공으로 마감했고 지붕은 눈썹지붕 형식이다. 부안 내소사 설선당과 요사는 두 개의 맞배지붕을 연결한 독특한 구조로 산중생활의 다양한 기능을 수용한 공간구성 방식과 자연 지형을 이용하면서도 위계적 구성을 온전하게 갖추고 있어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 사찰 건축으로 평가된다. 정화영 부안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부안 내소사 설선당과 요사의 보물 지정 예고를 통해 앞으로도 부안의 소중한 문화유산 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보존 관리에 힘쓰고 우수한 문화유산이 부안에서 꾸준히 발굴 조사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안=은봉기 기자

## 고창 세계유산 고인돌박물관, 이달의 유물展

### '알쏭달쏭 유물' 주제

고창 세계유산 고인돌박물관이 '알쏭달쏭 유물'을 주제로 5월 이달의 유물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알쏭달쏭 유물'전시는 무장현관아와 읍성에서 출토된 조선시대 유물과 박물관 소장 민속유물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일상생활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옛 물건을 통해 다양한 세대가 함께 과거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민속유물인 솟다리미와 무장현 관아와 읍성에서 출토된 맷돌, 등잔 등 총 10점이 공개된다. 어린이들이 역사적인 장소와 옛 문화를 반영하는 유물을 통해 고창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도록 돕는다. 특히 관람객에게 단순히 유물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옛 모습을 사진영상으로 담아내 생동감 있는 역사 경험을 제공한다. /고창=백종규 기자



<사진=고창군>

나윤옥 고창군 세계유산과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모두가 역사와 문화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뜻깊은 전시가 될 것"이라며 "어린이들에게 조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유물의 이야기를 전하고,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김제시, 내달까지 반려동물 자신신고

### 미등록시 과태료 60만원

김제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내달 30일까지 1차 '동물등록 자신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 인지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를 알지 못해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자신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 또는 준주택,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을 통해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의 주소·연락처, 소유자 변경 등 등록 정보가 바뀌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 할 경우 동물 미등록은 최대 60만원, 변경신고 미이행은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이번 자신신고 기간 내 미등록 해 내달 30일까지 1차 '동물등록 자신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 인지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를 알지 못해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자신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반려동물 유기 방지, 소유자의 책임 의식 강화를 위한 법적 의무 사항이며, 외출 시 목줄 착용(2m 이내)과 배설물 수거 등 펫티켓을 준수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 부안군, 농업용 면세유 보조금 적극 홍보

부안군은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업인들을 위해 정부와 농업이 시행하는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사업 홍보에 적극 나섰다

이런 사업은 농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한시적 지원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을 신고하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경영주다. 경유, 등유, 중유, 난방용 LPG 등의 유종에 대해 월별 평균가격과 기준가격 차액의 70%를 보조한다.

지원 대상 기간은 경유의 경우 지난 3월부터 오는 9월 구입분까지이며 시

설농가 난방유는 3·4·9월 구입분이 해당된다.

실제 지원금액은 유종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 농가별 실제 면세유 구매량에 따라 산정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의 면세유 관리 지역농협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고유가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농업인들에게 이번 사업이 실질적인 힘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자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기한 내에 반드시 서류를 접수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안=은봉기 기자

## '고창갯벌 이달의 새' 노랑부리백로 선정

고창군이 5월 '고창갯벌 이달의 새'로 노랑부리백로를 선정하고 갯벌 생태계 보전과 멸종위기종 보호 인식 확산에 나선다.

노랑부리백로는 전 세계에 약 5000마리만 남아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다. 우리나라에서 번식하는 개체군이 전체 개체 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좋은 하얀 깃털과 선명한 노란 부리를 지닌 백로류로, 검은 부리를 가진 쇠백로와 쉽게 구분된다. 특히 번식기에는 화려한 번식깃이 온몸을 감싸 외형적 특징이 더욱 두드러진다. 노랑부리백로는 해안선을 따라 건너 빠르게 이동하며 먹이를 찾고, 때로는 날개를 펼쳐 물 위에 그늘을

만들어 사냥 시야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사냥 행동을 보인다.

고창갯벌은 도요물떼새를 비롯한 여러 철새의 먹이 활동과 번식이 이뤄지는 공간이다. 노랑부리백로와 같은 멸종위기 조류의 서식은 이러한 생태적 가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된다.

나윤옥 고창군 세계유산과장은 "노랑부리백로는 세계적으로 개체 수가 매우 적은 희귀종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 개체군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세계자연유산인 고창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부안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 확대

## 전 주유소서 사용 가능 유류비 부담 완화 기대

부안군은 고유가로 인한 군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와 지원금 사용 편의 제고를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를 지난 1일부터 주유소까지 전면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범정부 TF 회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기존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했던 사용처 기준을 완화해 주유소에 한해 매출액과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은 관내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추가로 사용처에 포함해 보다 많은 군민이 편리하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도 지급 받은 경우 지난 1일부터 주소지 관내 주유소에서 매출액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부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은 경우에도 기존 가맹점 및 한시적으로 등록된 주유소에서 오는 8월 31일까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정화영 부안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사용처 확대를 통해 군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다소 완화되고 지원금 이용에 대한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은봉기 기자

# 김제시, AI 농업 로봇 실증사업 선정

## 2030년까지 AI로봇 개발 실증 인프라 구축

김제시는 지난 4일 산업통상부가 주관한 '시설농업 AI 로봇 실증기반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돼 시설농업 환경에 특화된 AI로봇 개발과 농업용 로봇 실증 인프라 구축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설농업 분야에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접목한 실증기반을 구축하는 초광역 협력사업이며, 한국전자기술원의 AI/SW실증 역량과 충남대학교의 HW 검증 역량을 결합, 총사업비 약 297억원(국비 139억 원 포함)규모로 2030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시는 농업 로봇 실증을 중심으로 가상

환경과 실제 환경을 연계하는 'Sim-to-Real' 기반 통합 실증체계를 구축해 기술 상용화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온실 환경에 특화된 AI 로봇 실증 테스트필드를 조성하고, 시뮬레이션 기반 가상 환경부터 실제 온실 현장 검증, 시험·인증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농업 로봇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특히 '피지컬 AI' 기술을 활용해 실제 온실 환경을 가상공간에 정밀하게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가상환경에서 반복 학습·검증된 데이터를 실제 환경에 적용하는 실증 체계를 구축하고, 수확·이송·방제 등 고난도 농작업을 수행하는 지능형 AI 모델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제=은봉기 기자

또한 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연계한 실환경 실증을 통해 기술개발부터 실증,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 향후 농업 AI·로봇 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업 유치 확대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실·가상 통합 실증 인프라는 향후 로봇 표준화 및 인증 체계와 연계해 K-농업로봇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선정은 김제시가 농업 AI·로봇 분야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실증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업의 상용화 기간을 단축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은봉기 기자

# 고창군, 유아숲체험원 본격 운영

## 나들목공원·운곡습지... 자연 활용 창의력 증진

고창군이 유아와 가족의 건강한 숲 체험을 위해 '고창군 유아숲체험원' 2곳(나들목공원·운곡습지)을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아숲체험원은 자연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산림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트리하우스, 모험놀이대, 그물네트 등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다양한 놀이 공

간을 제공한다. 유아숲체험원은 이달부터 11월까지 운영되며 아이들이 울창한 숲속에서 피톤치드와 햇빛, 바람 등 자연 요소를 만끽하며 창의력을 키우고 심리적 안정과 면역력을 강화하는 시간을 갖을 수 있다.

운영방식은 크게 '정기반'과 '수시반'으로 나뉘어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정기반은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보육 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숲 체험 기회를 제공해서 아이들이 자연과 지속적으로 교감하도록 돕는다.

수시반은 개인이나 가족, 일반 단체를 대상으로 유아숲체험 지도사가 함께하는 체험 활동을 수시로 운영하면서 더 많은 군민이 산림 복지 서비스를 고르게 누릴 수 있게 했다. 김중신 산림복지과장은 "아이들이 숲에서 자연생태적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활기찬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천연거피재 설치 등 세심한 관리를 통해 가족 구성원 모두가 유아숲체험원에서 안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 김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 확대... 18일부터 사전예약

김제시는 시민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2026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은 지난해 시민들의 만족도 및 요구도를 반영해 기존에 실시하던 유료 생백신 접종 500명에 더불어 사백신(사멸시킨 바이러스 백신) 200명분을 추가 도입, 시민들의 선택권을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50세 이상 김제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유료 접종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 사전 예약을 통해 총 700명(생백신 500명, 사백신 200명)을 선착순 접수할 예정이며,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사전 예약자는 오는 26일부터 6월 26일까지 순차적으로 접종을 받게 되며, 접종 일자는 보건소에서 일괄 배정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유료 접종은 유료 생백신과 사백신 중 개인의 선택에 따라 접종할 수 있다. 다만 기접종자나 예방접종 금기자는 제외되며 생백신 접종 후 5년이 경과한 자에 한해 사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사백신의 경우 완전한 면역 형성을 위해 총 2회 접종이 필요하나, 이번 사업에서는 1회만 접종 가능하므로 사백신을 선택한 시민은 추후 본인 부담으로 의료기관에서 2차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접종 희망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유료 접종은 유료 생백신 접종비는 8만 원, 사백신은 18만원이며 백신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접종은 김제시 보건소 예방 접종실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중식 시간 제외)까지 진행된다.

한편, 대상포진 예방접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예방접종실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은봉기 기자

## 고창문화의전당, 7일 뮤지컬 '헤어드레서' 막 올릴

고창문화의전당이 뮤지컬 '헤어드레서'를 7일 저녁 7시30분에 무대에 올린다.

'헤어드레서'는 1930년대 조선을 배경으로 한국 최초의 여성 미용사 오영주의 삶을 모티브로 한 창작 뮤지컬로, 시대의 편견을 넘어 자신만의 예술과 아름다움을 개척한 한 여성의 여정을 감각적인 무대예술로 담아낸 작품이다.

주연에는 뮤지컬 배우 소냐와 트로트 가수 조정민이 출연해 폭발적인 감정 연기와 노래, 섬세한 무대 표현으로 작품의 완성도를 더한다.

이번 공연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26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 선정 공연으로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이엘프리스와 고창문화의전당이 주관한다. /고창=백종규 기자

## 부안 부안읍 지사협, 어린이날 맞이 선물꾸러미 지원 추진

부안군 부안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간간위원장 김정)는 어린이날을 앞둔 지난 2일 지역 아동을 위한 선물꾸러미 지원 특화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신규로 추진된 사업으로 아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물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들을 응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기획됐으며 관내 아동 40명을 선정해 협의체 위원들이 과자 선물세트와 교구로 구성된 선물꾸러미를 직접 준비해 전달했다.

김정 민간위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주민의 복지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내 여러 기관과 협력해 이웃이 이웃을 살피는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이어 "앞으로도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정부 및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에 꼭 필요한 지원 정보가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안=은봉기 기자

# 국영석, 완주군 경선 연대 원탁회의 제안

### 地選 판세 변수 부상 주목 유히태 후보 행정 비판 제기 지역 지도자 참여 공개 요청

국영석 전)완주사람지킴이 운동본부장은 지난 4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 대도약과 중단 없는 완주 발전을 이끌어 낼 현 위기 타개의 해결 방안으로 ‘완주대도약을 위한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을 초월한 오롯이 완주군 발전을 위한 정책연대를 통해 유히태 후보의 독선과 불통 행정을 저지하고 완주 대도약을 이끌 새로운 리더를 선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 전 본부장은 “유히태 후보의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군민의 우려, 부동산 투기 의혹에 따른 심각한 도덕성 결여, 사법리스크 등으로 6.3지방선거 후에도 후유증이 계속될 것이 자명하다”며 “완주 대전환을 위해 군민 위에 군림하는 군수가 아닌, 내 삶을 바꾸줄 실력 있는 군민 주권형 군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국 전 본부장은 “완주 발전을 위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경선과정에서 정책연대로 뜻을 함께한 이돈승, 서남용, 임상규 동지를 비롯해 박성일 전 완주군수, 송지용 전 전북도의장 등 지역사회 지도자가 함께 뜻을 모으는 원탁회의를 제안한다”며 “더불어, 완주군민의 대의기관을 이끄

는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의 원탁회의 참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 전 본부장은 “저는 ‘선당후사(先黨後私)’의 신념으로 민주당 전북도당과 공천관리위원회의 오판을 뒤로하고 민주당을 위한 길을 선택했다”며 “이제는 ‘선민후당(先民後黨)’의 신념으로 정치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오로지 완주군민만을 바라보고 완주의 미래를 설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국 전 본부장은 “완주의 자치권을 지키는 것에 결코 타협은 없다”며 “뺨을 갈아 넣는 각오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자주독립체로서의 완주 건설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 순창군 성유미 교육사, 국악동요 공모서 수상

### 창작 ‘하얀 밥 어디서 왔니?’ 국립국악원장상 영예

순창군 금과들소리전수관에서 근무 중인 문화예술교육사 성유미 씨가 국립국악원이 주최한 국악동요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군에 따르면 성 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린 ‘제40회 국립국악원 창작 국악동요 작품 공모전’ 시상식에서 ‘하얀 밥 어디서 왔니?’를 작사·작곡해 국립국악원장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수상작 ‘하얀 밥 어디서 왔니?’는 모내기 과정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풀어내고, 농사일 속에서 전해 내려온 들소리를 현대적인 선율로 표현해 밤 한 그릇에 담긴 땅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 씨는 전남대학교 국악학과에서 거문고를 전공했으며 현재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문화경영관광 전공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전수관 근무 이전에는 순창 청소년무지개 국악오케스트라 강사로 활동했으며, 2024년 제35회 목포전국국악경연대회 기악 일반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수상작 음원은 ‘국악동요 선집



<사진=순창군>

제37집’으로 제작돼 음원 서비스를 통해 공개됐으며 국립국악원 국악자료관에서도 들을 수 있다. 또한 올해 수상작은 창작자가 정한 저작권 이용 조건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성유미 교육사는 “금과들소리 전승 과정에 함께하며 우리 농요가 지닌 생명력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순창의 소중한 전통 농경 문화유산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돼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순창군과 금과들소리 보존회원들의 격려 덕분에 자부심을 갖고 작품을 만들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공모전에는 총 115개 작품이 출품됐으며 12곡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은 전민 씨의 ‘말도 선을 여행’이 차지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 순창군, ‘알락하늘소’ 피해 대응 대량 포획 시범사업 추진

순창군은 최근 기후변화로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알락하늘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8개 읍·면을 대상으로 ‘알락하늘소 대량 유인 포획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알락하늘소 성충이 산란 과정에서 나무를 고사시키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순창군은 관내 주요 과수 농가에 전용 트랩과 유인제, 유인제 방출기 등 총 144세트의 방제 장비 공급을 완료했다.

알락하늘소는 주로 나무 밑동에 알을 낳고, 부화한 유충이 나무 내부를 갉아먹어 과원을 황폐화시키는 해충으로, 특히 블루베리 농가에 경제적 피해가 큰 해충으로 꼽힌다. 방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성충 활동기인 6월부터 7월 사이에 트랩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설치 장소는 블루베리 밭 입구 바깥쪽이나 과원 외부가 적절하며, 트랩 주변에 장애물이 없어야 유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또한 트랩 통의 높이는 성인 가슴 정도 위치 맞춰야 포획률을 높일 수 있다.

특히, 군은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단순한 장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올바른 설치 방법과 관리 요령을 적극 안내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 완주군 어린이날 대축제 성료 인공지능·아동 권리 어우러져

아동친화도시 완주군이 제104회 어린이날을 맞아 ‘완주에서 점프(JUMP)!’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개최한 어린이날 대축제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5일 완주군청 어울림 광장에서 ‘무인기(드론) 마술쇼’를 시작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첨단 인공지능(AI) 기술과 아동 권리 증진을 결합한 아동·청소년 중심 축제로 완주의 위상을 드높였다.

이번 야외광장에서는 아이들의 소망을 적어 만든 ‘완주-소망 나무’가 꿈을 키웠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시간여행 놀이 구역’과 ‘캠핑 구역’에서 부모 세대 추억의 놀이를 온 가족이 공유했다.

이와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아동 권리 활동을 진행해 아동 권리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성숙한 시민 교육의 장을 마련했다.

어린이들은 인공지능 기반 승마 기기,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지능 로봇 팔을 직접 조작하며 미래 기술을 몸소 체험했다. 또한 3차원 인쇄(3D프린팅)와 무인기 비행 시연을 관람하며 상상력을 자극했다. 완주군 특화 산업을 체험할 수 있는 ‘수소 에너지 버스’에서 휴식을 취하며 청정 에너지의 원리를 배우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특히 완주군은 아이들이 제안한 ‘끼 발달 자랑 대회’를 아동 참여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야외 무대에서 아동 청소년 11팀의 열정적인 춤(댄스), 악단(밴드) 공연 대회를 펼쳤다.

/완주=김명곤 기자

## 완주군, 대학생 토익·한국사 응시료 지원

### 1인 최대 17만원 실비 지급 연중 신청·소급 적용 가능

완주군이 지역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대학생 여학 및 자격 응시료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완주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우석대학교 대학 일자리 본부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지역 인재들이 여학 성적 및 자격 취득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시험응시일 1개월 전부터 연속하여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 재학생과 휴학생이다. 지원

종목은 영어 능력 평가 시험(TOEIC) 응시료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심화)이며,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최대 17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응시료를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2월 24일까지다. 특히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13일 사이에 실시된 시험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서와 필수 서류를 구비해 전자 우편(kog716@woosuk.ac.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서류는 거주지 확인 및 자격 검토를 거쳐 매달 심사하며, 지원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달 15일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완주=김명곤 기자

# 남원시, 미등록 아동 의료 사각지대 해소 나서

### 남원의료원-청소년상담센터 협약 0-13세·임산부까지 지원 확대

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정일신)와 남원의료원(원장 오진규)은 지난 4일 출생 미등록 이주아동 의료지원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북은행이 후원하는 ‘프로젝트 169’ 사업의 일환으로 0세부터 13세까지의 출생 미등록 아동뿐만 아니라 임산부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 아동들의 건강권과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마련됐다.

‘프로젝트 169’ 사업은 2030년까지 출생 등록을 포함해 모든 사람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6.9조항의 내용을 반영한 사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남원의료원은 보건복지부의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지침을 준용, 대상자의 의료비를 일반 수가가 아닌 ‘의료급여 수가’로 책



<사진=남원시>

정해 전체적인 비용 부담을 낮추며 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프로젝트 169 사업 안내서에 따라 사업 대상자의 의료비는 내부 규정에 따른 최소한의 자부담을 제외하고 지원한다.

정일신 센터장은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아동들이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 없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오진규 남원의료원장은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미등록 아동과 임산부가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남원시는 지난 2024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지원 조례를 제정해 남원 아동 확인증을 발급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올해 ‘프로젝트 169’ 사업에 선정됐다.

/남원=김종원 기자

# 순창군, 올댓트래블서 관광자원 홍보 성과

### 발효문화·강천산 등 매력 부각 ‘장류축제’ 예비 글로벌축제 주목

순창군이 4월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6 올댓트래블(ALL THAT TRAVEL)’ 박람회에 참가해 순창의 전통 발효 문화와 주요 관광자원을 홍보하며 관람객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올댓트래블’ 박람회는 코엑스와 이데일리가 공동 주최하는 국내 대표 관광 전문 행사로, 전국 지자체와 관광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지역 관광자원과 최신 여행 트렌드를 공유하고 관람객과 업계 간 교류·협력이 이루어지는 복합형 관광 플랫폼이다.

순창군은 이번 박람회에서 순창장류축제, 강천산 근린공원, 발효테마파크, 양지천 등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과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며 순창만의 차별화된 관광



<사진=순창군>

매력을 적극 홍보했다.

특히 순창장류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예비 글로벌축제’로 선정된 점을 부각하며, 순창의 전통 발효 문화가 세계적인 관광 콘텐츠로 도약하고 있음을 널리 알렸다.

현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순창의 발효 문화와 자연 관광자원이 조화를 이

루고 있어 인상 깊었다”며 “장류축제가 글로벌 축제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고, 직접 방문해 보고 싶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 남원시,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본격화

### 7억5천 투입 엔진·전동화 지원 엔진교체 29대·전동화 7대 대상

남원시는 노후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7억 5,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엔진 교체 및 전동화 개조를 지원 하는 것으로, 이달 4일부터 22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내용은 엔진 교체 29대, 전동화 개조 7대이며,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남원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로, 엔진교체 대상은 배출가스 기준 Tier-1 이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 등 노후 건설기계이며, 전동화 개조 대상은 대국민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동화 가능 건설기계 모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남원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진단시스템(mecar.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남원시청 환경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남원=김종원 기자

# 남원시, 가상융합 콘텐츠 ‘남원의 칼’ 제작 선정

### 대장간 기술 AR 체험 콘텐츠 장인 기록 아카이브 함께 조성

남원시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 ‘2026년 지역기반 가상융합 서비스 제작실증 지원사업’에 지정 과제 최종 선정돼 국비 8,4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남원다움관이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 장인들의 기록을 바탕으로 기획됐다. 남원의 전통 대장간 기술을 소재로, 관람객이 쉽게 이해하

고 흥미롭게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기록 콘텐츠 ‘남원의 칼’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콘텐츠로는 관람객이 체험 테이بل에서 직접 대장장이가 되어 철을 달고 두드리는 역동적인 과정을 시각·청각적으로 즐길 수 있는 증강현실(AR) 체험 게임이 마련된다. 또한 남원 장인들의 팔자취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아카이브 패널을 남원다움관 내에 함께 조성한다.

한편, 남원다움관은 이번 성과를 포

함해 2026년까지 국가공모사업에 총 10회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남원의 칼’ 콘텐츠는 점차 잊혀져 가는 지역 장인들의 땅방울을 첨단 가상융합 기술로 되살려, 생생한 체험형 기록으로 돌려드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남원다움관이 단순한 기록 보존을 넘어, 전 세대와 소통하는 살아있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 완주군, 사회복지사 처우 실태 전면 조사 나서

### 보수근로환경 등 5개 분야 점검 8월 결과 공표 정책 반영 예정

완주군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전면 진단을 위해 5월 한 달간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노인·아동·장애 분야 등 복지시설 16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는 온라인 방식으로 △보수 수준 △근로환경 △직무 만족도 △인권 보장 등 핵심 5개 분야를 집중 점검해, 현장의 체감도 높은 정책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사 결과는 단순 통계에 그치지 않고, 8월 공표 후 2027년부터 3년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정책에 직접 반영될 예정이다.

송중택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조사에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임실군,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교육 성공적 마무리

임실군농업기술센터(소장 천소영)는 지난 2월 25일부터 4월 27일까지 총 15회, 62시간에 걸쳐 진행된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교육은 귀농·귀촌인들에게 기초영농기술과 농업정보를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과정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교육과정은 신규농업인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을 비롯해 △토양의 이해와 활용 △작목별(고추, 두릅, 감자, 고구마, 파 등) 재배기술 이론 △농기계 안전사용 이론 및 실습 △농산물 가공 △시설재배(토마토, 딸기) 선진농가 현장교육 △농업인 날씨 정보 활용 교육 등으로 구성했으며,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 전문성과 현장감을 고루 갖춘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임실군농업기술센터 천소영 소장은 "이번 기초교육을 발판으로 앞으로 예비농업인과 신규농업인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임실, 부동산·세무 행정 지원

장수군, 2026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29일까지 열람·이의신청

장수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지난달 30일 결정·공시하고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오는 29일까지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의 건물 및 부소토지를 일괄 평가해 산정되며, 지방세와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 가격은 총 8,039호이며 전년 대비 0.1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동주택 수요에 비해 개별주택 수요가 상대적으로 위축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및 장수군청 재무과와 읍·면 총무팀에서 가능하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안에 장수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총무팀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장수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5월 소득세 도움 창구 운영

고령자장애인납세자대상

임실군은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납세자 편의 제공을 위해 6일부터 내달 1일까지 군청 1층 종합민원과에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창구는 모두 채움대상자를 중심으로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납세자를 지원한다. 그 밖의 납세자는 PC와 모바일을 이용해 비대면 전자신고할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개인과 소득세 신고기간 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모바일 앱 '손택스'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한 번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 등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의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신고기간 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액션그룹 참여 프리마켓 개최

'산채원' 등 9개 액션그룹 무주만의 특색 상품 선보여

무주군은 5일 설천면 힐링정원센터 일원에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단'을 맞아 무주를 찾은 '액션그룹' 프리마켓을 열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는 액션그룹(사업을 운영하는 주민 조직)을 활성화하고 '어린이날'을 맞아 무주를 찾은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산채원'의 표고버섯과 반려 식물, △'댕이일랜드'의 에건수제 간식, △'협동조합공간'의 공예 굿즈, △'산골방앗간'의 숯불 등 '산의 화제'와 '오래된 아가씨들'의 먹거리 등 9개의 액션그룹이 내놓은 무주만의 특색 상품들이 전시·판매됐다.

또한 '원에 화분 만들기'를 비롯한 '반려 식물 체험', '페이퍼페인팅', '동화나라 포토존' 등 어린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이벤트가 펼쳐져 방문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사)무주군신활력플러스사업단은 이번 시범 행사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액션그룹 상설 프리마켓 운영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자립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무주=최희호 기자



장수 번암면지사협, 어버이날 홀어르신들께 나눔 실천

장수군 번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가정의 달을 맞아 '맛있는 한 상, 어버이날 효한 끼' 특화사업을 실시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매년 꾸준히 추진되고 있는 번암면지사협의의 대표 특화 복지사업으로 지역 내 독거노인과 저소득 취약계층 20가구에 반찬과 음료, 카네이션을 전달하며 따뜻한 안부를 전했다.

이번 나눔은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각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살피고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운영됐다.

특히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정성껏 준비한 반찬과 음료, 카네이션을 전달하면서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세심히 살피는 등 현장 중심의 복지활동을 펼쳤다.

/장수=최진수 기자

장수군, HPV 예방접종 확대 시행

12세 남아까지 무료 접종 HPV 감염 전파 차단

장수군보건의료원(원장 노승무)은 6일부터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기존 12-17세 여성 청소년에서 12세 남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HPV는 자궁경부암뿐만 아니라 생식기 사마귀, 항문암, 구인두암 등 다양한 질환의 주요 원인 바이러스로, 남성 또한 감염 및 전파의 주체가 될 수 있어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확대 대상은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남성으로, 6일

부터 장수군 보건의료원과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사용 백신은 가다실 4가 백신이며, 접종은 6개월 간격으로 총 2회 실시된다.

이번 사업은 예방접종 형평성 확보와 HPV 감염 및 관련 질환 감소, 지역사회 내 감염 전파 차단을 목표로 추진된다.

/장수=최진수 기자

2026 임실N페스티벌, 역대 최대 방문 기록

3일간 총 8만7천명 방문 전년 대비 6% 증가 집계

대한민국 반려동물의 성지 임실군에서 열린 '제41회 의견문화제와 함께하는 2026 임실N페스티벌'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반려견과 반려인 등 수많은 인파 속에 성황리 막을 내렸다.

군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열린 이번 축제에는 총 8만 7천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해 대비 6% 증가한 수치로 의견문화제와 페스티벌을 연계, 개최한 이후 역대 최대 방문 기록이다.



2026 임실N페스티벌

<사진=임실군>

체협이 동시에 이뤄지며 심미적 만족도 역시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다.

또한, 흥보담당관을 중심으로 한 방송-언론-SNS 연계 홍보가 더해지며 전국단위 방문객 유입을 견인했다.

프로그램 구성도 한층 전문화됐다. 새롭게 도입된 'FCI(세계애견연맹) 어질리티 경기대회', 'KKF(한국애견연맹) 위그렛 미용 경진대회', '오수 마스터즈 데이' 등 신규 콘텐츠가 확대되며 축제의 완성도를 높였다.

역대급 인파가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축제운영이 가능했던 데에는 군의 철저한 사전 준비가 큰 역할을 했다. 군은 행사장 주변 13개소에 총 1,464대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진출입로를 정비하여 방문객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1982년 시작되어 올해로 41회를 맞이한 의견문화제는 이제 반려동물 복지 증진과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축제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5월 주말 바둑·그라운드골프대회 성황

진안군에서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제6회 진안마산배 전국 바둑대회(진안군체육회 주최, 진안군바둑협회 주관)'가 진안문화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같은 날인 2일에는 진안 공설운동장에서 '2026년 무진장 그라운드골프대회(진안군체육회 주최, 진안군그라운드골프협회 주관)'가 열렸다.

먼저, 전국 바둑 동호인 400명이 참가한 바둑대회는 성인부와 학생부로 나뉘어 진행되어 수준 높은 대국이 펼쳐졌다.

대회 결과, 전국 2개부에서 김제시(시니어대항전부), 서울특별시(여성5인단체부), 전북 성인부에서는 이용복(갑조), 김희철(을조)이 우승을 차지했고, 전북 학생부에서는 이지호(유단자부), 유준혁(고학년부), 박찬우(중학년부), 이효연(저학년부), 박요셉·박요한·강은별(무진장 갑·을·병조)이 끝나무단체부에서는 A조(전하은·박승원·김재연·최지성·김시하·이교원·최유성)가 우승을 차지했다.

같은 날 열린 무진장 그라운드골프대회 개인전에서는 무주군 장윤홍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으며, 단체전 남자와 여자부에서도 무주군이 우승을 차지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안성낙화놀이, 사전 예약제·유료 전환

무주군 '야간관광 활성화' 주력

무주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이 눈길을 끌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먼저 조성된 관광자원과 문화를 활용해 방문객들의 체류시간 증대를 유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반딧불이 신비탐사'를 상설화(6-9월)하기로 한 데 이어 지난 1일에는 '무주안성낙화놀이'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무주군관광협회의가 주관한 가운데 펼쳐진 이번 행사는 유료화에도 불구하고 사전 예약을 통해 7백여 명이

참여해 '자연특별시 무주'의 브랜드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야간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행사 당일에는 '낙화놀이'를 비롯해 낙화봉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과 시선 공연이 함께 운영되며 자연과 문화, 관광이 결합한 무주형 체류 관광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윤승 무주관광협의회 회장은 "그 동안 무료 운영에 따른 혼잡과 안전관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시도한 '사전 예약제'와 '유료화' 운영이 관람객 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

쳤다"라며 "안전사고 없이 관람 품질과 만족도를 크게 높인 이번 행사를 거울삼아 무주 관광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자연특별시 무주만의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여름 속에서 자연과 전통이 빛나는 '무주안성낙화놀이'의 독창적인 관광을 기반으로, 관광형 행사를 넘어 체류형 야간관광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유료화 전환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며, 지속 가능한 전통문화 관광 자원으로서의 경쟁력도 강화했다.

/무주=최희호 기자

임실군, 고추 적기 정식 현장 지도 강화

다수확 안전생산 위한 첫걸음

임실군은 고추 정식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고품질 고추 안전생산을 위한 고추 적기 정식 현장 기술지도에 나선다.

임실군 고추 적기 정식 시기는 임실군 만상일인 5월 8일 전후로 진행되는 것이 적절하다. 최근 기온 상승으로 정식 시기를 앞당기는 농가가 늘고 있으나, 갑작스러운 저온이나 서리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추 정식에 적합한 모종은 잎이 11~13매, 키가 20~25cm 정도로 절간 사이가 넓지 않으며 옷자라지 않아야 한다. 또한 줄기가 굵고 흰색의 굵은 잔뿌리가 잘 발달되어야 하며, 떡잎이 손상되지 않고 건전해야 한다.

정식하기 전 본답 재식거리는

120cm×40cm 정도로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고 두둑 높이는 20cm 이상 높여준다. 정식 일주일 전에는 비닐 멀칭을 하여 지온 상승 및 토양 수분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정식 7~10일 전 육묘상은 정식 포장과 같은 환경 조건으로 맞춰주는 순화작업을 거쳐야 한다. 육묘장의 온도를 서서히 낮추고 물 주는 양을 줄여 노지 환경에 미리 적응시킨 묘는 정식 후 식물체의 몸살을 최소화하고 초기 활착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임실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조기 정식보다는 기상 상황을 살핀 후 적기 정식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추 안전생산이 가능하도록 현장 지도 및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 천천면지사협, 아동 학용품 쿠폰 지원

조규덕 민간위원장 전액 기부

장수군 천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조규덕)는 지난달 30일 관내 초·중학교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학용품 지원 특화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아동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역사회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규덕 민간위원장의 전액 기부로 추진됐다.

협의체는 총 125만 원 상당의 학용품 쿠폰(1인당 5만 원)을 마련해 천천 초등학교와 천천중학교 재학생 25명에게 지원하고 각 학교를 직접 방문해



대상 아동들에게 전달했다.

한편 천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며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좀더 나은 복지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코로나19 예방접종 연장 실시

고위험군 대상 6월 30일까지 연장

진안군이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당초 4월 30일 종료 예정인 2025~2026분기 접종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접종대상자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로서, 이번 조치는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고위험군의 미접종 비율이 여전

히 높은 상황을 고려해 결정됐다.

2025~2026분기 백신을 접종한 면역저하자의 경우 면역 형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지난 1일부터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한 번 더 접종할 수 있다.

민문수 보건소장은 "어름철 코로나19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아직 접종하지 않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께서는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전주 동물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회장 김홍식)는 지난 4일 어린이날을 맞아 하나금융재단의 후원으로 전주 동물원에서 야와 체험 기념행사를 열고,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이번 행사는 문화 체험 기회가 적은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정서적 즐거움을 제공하고, 학습품 지원을 통해 학습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관내 취약계층 및 조손가정 아동 25명과 인솔자가 참여했으며, 오전 10시 동물원 관람을 시작으로 체험활동과 식사, 학습품 전달이 이어졌다.

김홍식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회장은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 전북의 미래를 이끌어 가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협력과 나눔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익산 금마면 새마을부녀회, 어르신께 정성 담은 반찬 전달

익산시 금마면 새마을부녀회는 어버이날을 앞두고 지난 4일 지역 내 취약계층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반찬 나눔' 행사를 펼쳤다.

이번 나눔은 독거노인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금마면 36개 마을 부녀회장은 돼지고기 주물럭과 열무김치 등 밑반찬을 정성껏 만들었다. 이어 독거노인 가정 총 72가구를 방문해 반찬을 전달하고 건강 상태와 안부를 살피는 등 따뜻한 돌봄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금마면 새마을부녀회장은 “어버이날을 앞두고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께 따뜻한 한 끼를 전하고자 회원들과 뜻을 모았다”며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통해 어르신들이 이웃의 정을 느끼고 활기찬 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영선 금마면장은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초록우산, 익산 어린이들에게 행복 담은 선물 전달

장난감 2,000개 후원

어린이날을 맞아 익산 어린이들에게 행복을 전할 특별한 나눔이 펼쳐졌다.

익산시는 지난 4일 초록우산 전북지역본부와 초록우산 익산후원회가 인형 등 장난감 2,000개(8,00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된 물품은 취약계층 아동 가정과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해 오는 5일 중앙체육공원과 원광대학교 일원에서 열리는 '어린이날 행사' 참석 아동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박미애 전북지역본부장은 “아이들이 선물을 받고 마음껏 놀며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고, 유기달 익산후원회장은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이 조금 더 행복한 하루를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후원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행복한 선물을 마련해 주신 초록우산 전북지역본부에 감사드립니다”며 “기부하신 뜻에 따라 아이들에게 소중한 선물이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시는 지난 4일 초록우산 전북지역본부와 초록우산 익산후원회가 인형 등 장난감 2,000개(8,00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사진=익산시>



김제 청하면지사, 홀어르신들께 어버이 날 선물-꽃바구니 전달

김제시 청하면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송형석) 위원 18명이 지난 4일 독거세대 등 취약계층 어르신 100세대에 선물꾸러미와 카네이션 꽃바구니를 전달하는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지사협 위원들은 이날 정성스레 만든 선물꾸러미(황도·쌀국수·사골곰탕, 짜파게티, 진라면)와 카네이션 꽃바구니를 어르신들 가정에 직접 전달하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카네이션과 식품꾸러미를 받은 한 어르신은 “자식들이 멀리 살고 있어 항상 외롭고 허전했는데 정성 가득한 꽃바구니와 꾸러미를 받으니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전했다.

송형석 민간위원장은 “5월 어버이 날을 맞아 어르신들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군산 솔한의원·카페리즈, 어르신께 드립백 커피 기부

1천만원 상당 커피 전달

군산시 소재 (재)대한환경보건의 솔한의원과 카페리즈는 지역 내 통합돌봄 대상자 및 관내 어르신들을 위해 드립백 커피(1천만원 상당)를 기부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번 기부는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으로 외부활동이 제한적인 통합돌봄 대상자들에게 소소한 즐거움과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된 드립백 커피는 각 대상 가구에 배부될 예정이며, 물품 전달

과정에서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돌봄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솔한의원 관계자는 “환자들을 돌보며 지역사회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위로를 전할 방법을 고민하다 이번 기부를 결정했다”며 “커피 한 잔이 대상자분들의 일상에 작은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카페리즈 측은 또한 “정성껏 준비한 커피가 응원의 메시지로 전달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승길 기자



정읍불교사암연합회, 장학금 300만원 쾌척

정읍불교사암연합회(회장 대원스님)는 지난 날 30일 부처님 오신 날 기념 봉축담 점등식을 열고 정읍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300만원을 정읍시민장학재단에 기탁했다.

이번 장학금 기탁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자비와 나눔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합회는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의 학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

고자 뜻을 모았다. 정읍불교사암연합회 관계자는 “지역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서 “우리 아이들이 각자의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학수 시장은 “전달받은 장학금은 학생들의 학업 지원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원 기자



남원 청소년, 춘향제서 역사문화 홍보 활약

(사)삼동청소년회가 위탁 운영하는 남원시청소년문화의집은 기존 ‘청소년 관한루원 해설사’에서 명칭을 변경해 활동 영역을 넓힌 ‘청소년역사문화홍보단’을 통해, 제96회 춘향제를 맞이해 관한루원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남원의 역사와 문화를 생동감 있게 전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남원의 문화적 정체성을

탐구하고 자신들만의 언어로 관람객과 소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대현 관장은 “청소년들이 남원의 얼굴이 되어 활약하는 모습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이 우리 고장의 문화를 창의적으로 해석하고 전파하며 지역사회와 능동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다양한 장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고창 무장면지사협, 정기회의 개최·반찬배달 봉사

고창군 무장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회의 후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반찬배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정기회의에선 오는 8일 예정인 경로우대잔치와 관련해 행사 준비사항, 어르신 참여 지원, 원활한 행사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를 마친 뒤 협의체 위원들은 정성껏 준비한 반찬을 관내 취약계층 가정에 직접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했다. 이번 반찬배달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이웃의 생활 실태를 살피고 복지 사각지대를 조기에 발견하는 계기가 됐다.

강필구 무장면장은 “반찬 지원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상자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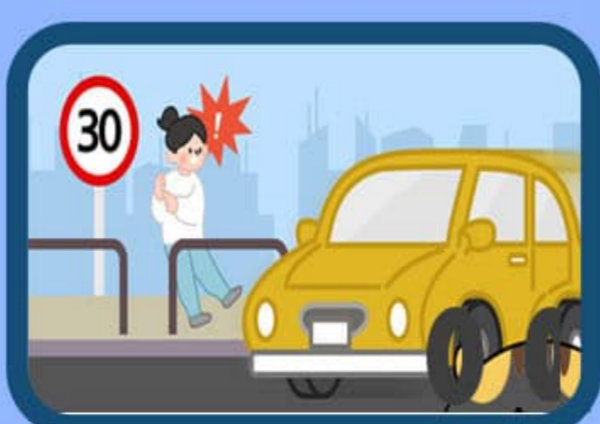
/고창=백종규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

불법 주정차 금지



시속 30Km이하 서행



횡단보도 일시정지



급제동 급출발 금지



〈一事一言〉



96.2%의 거부, 소풍을 범죄 현장으로 만든 것은 누구인가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대한민국 초등학교 10명 중 9명 이상이 현장체험학습을 꺼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성적표가 나왔다. 최근 초등학교노조가 전국 교사 2만 1,9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무려 96.2%가 현장체험학습 추진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그중에서도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90.5%에 달했다.

이 압도적인 수치는 단순히 교사들이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가기 싫어한다는 투정이 아니다. 사명감 하나로 버텨온 교사들이 법적 책임과 악성 민원이라는 벼랑 끝에서 내지르는 비명이자, 굶을 대로 굶아 터진 대한민국 교실의 처절한 자화상이다.

교사들이 이토록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9.8%가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감'을 꼽았다.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조차 교사 개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오롯이 져야 하는 구조 속에서, 소풍을 떠나는 교사의 발걸음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만큼이나 무겁고 두렵다. 여기에 37%에 달하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까지 더해지면, 현장체험학습은 더 이상 설레는 교육 활동이 아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 폭탄과 다름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청과 정치권이 보여준 행태는 무책임의 극치다. 해마다 학기 초가 되면 교육청은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을 명분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적극

장려하지만 막상 사고가 터지면 교사 뒤로 숨기 바빴다. 교사가 학부모의 고소·고발에 시달리고 법정을 드나들 때, 교육청은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했느냐"는 공문 한 장으로 책임을 회피해 왔다. 제도적 방패 하나 없이 교사의 선의와 희생에만 기대어온 그간의 교육 행정은 비겁함을 넘어 '교육적 폭력'에 가깝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전호성 전북교육감 후보가 내놓은 '현장체험학습 사법 책임 분담' 공약은 교육 현장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짚어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천 후보는 교사 개인이 감당해온 무거운 사법적·행정적 부담을 교육청이 전적으로 분담하는 공적 책임 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교사가 고소·고발을 격속하며 소풍을 포기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청이 대응 전면에 나서서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교실 붕괴를 막기 위한 매우 시의적절하고 구체적인 대안이다.

이제 전북교육청과 지역 정치권은 이 엄중한 수치와 천 후보가 던진 정책적 제안 앞에 무거운 답을 내놓아야 한다. 말로만 "미래교육"을 외칠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인솔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방패를 만들어야 한다.

천 후보의 공약처럼 (가칭)전북체험교육센터를 설립해 업체 선정, 계약, 정산 등 복잡한 행정 업무를 교육청 차원에서 일괄 처리하고, 전문지도사가 안전 관리

를 전담하는 '역할 이원화'가 시급하다. 그나마 교사나 '안전 관리자'나 '행정원'이 아닌 '교육 설계자'로서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다.

아울러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교원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 안전사고 처리 특례제' 도입과 조례 제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조사에 참여한 교사의 92.5%가 사고 시 면책권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한 대목을 교육 당국은 빼아프게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교육은 신뢰와 안전의 토대 위에서만 존재한다. 교사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심정으로 아이들을 인솔해야 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계속되는 한, 학생들의 소중한 체험 기회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소풍과 수학여행이 학교에서 영영 사라지는 비극을 막으려면, 정부와 정치권은 즉각 법 개정에 나서고 전북교육청은 실질적인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학생들을 위해 참아달라"며 교사의 희생을 강요하는 구태의연한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전호성 후보가 제시한 공약처럼 교사의 안전이 보장되는 공적 시스템이 구축될 때 비로소 학생의 안전 역시 담보될 수 있다. 전북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이들이라면, 96.2%의 교사들이 던진 이 슬픈 경고에 실천적인 행동으로 답하라. 그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고, 공공교육의 붕괴를 막는 유일한 길이다.

독자투고

빠름과 급함 - 차분한 선택으로 안전을 지키자



신호가 노란색으로 바뀌자 철수는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다. 물론 다음 신호에서 걸렸다. 다음 날, 신호가 노란색으로 바뀌자 철수는 어제보다 가속페달을 더 세게 밟았다. 덕분에 다음 신호에 걸리지 않았지만, 그다음 신호에 걸렸다. 결국 그는 평소와 같은 시간에 집에 도착했다. 그러던 어느 날...

빠른 것과 급한 것은 다르다. 전자가 물리적 상태라면, 후자는 심리적 상태이다. 그렇기에 급하게 가면서 느낄 수 있고, 반

대로 차분하게 가면서도 빠를 수 있다.

대륙 횡단을 하는 게 아니라면, 시내 주행에서 가속페달을 아무리 밟아봤자 결코 빠르게 갈 수 없다. 그저 마음만 급하게 갈 뿐이다. 우리는 이를 조급함이라 부른다.

다시 첫 문단으로 돌아가자. 마지막 줄 '그러던 어느 날...' 뒤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반복된 선택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결국 사고를 부른다. 철수는 언젠가 사고를 내고야 말 것이다. 사고는 불운이 아니라 잘못된 패턴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참혹한 사고를 막기 위해 거창한 실천은 필요하지 않다. 차분한 마음으로 운전하고, 신호가 바뀌기 전 가속 대신 감속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멈추어야 할 장소에서



멈추는 것. 그 사소한 선택이 보행자의 생명을 구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전주덕진경찰서 송천2파출소 순경 최세중

사설 '6억 성과급' 외치며 '몇만 원 기부' 끊는 노조, 그 비정한 이중성

삼성전자 노조의 도덕적 해이가 마침내 선을 넘었다. 1인당 6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노조의 조합원들이, 사내 계 시판을 중심으로 사회 취약계층을 돕는 기부금 약정을 단체로 해지하는 이른바 '기부 취소 릴레이'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충격을 넘어 참담함을 안겨준다.

삼성이 2010년부터 운영해 온 '매칭 그랜트' 제도는 임직원의 자발적인 기부금에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얹어 희귀질환이나 장애로 고통받는 아동들을 돕는 소중한 생명줄이었다. 그러나 노조원들은 회사가 매칭으로 기부하는 돈이 아깝다는 이유로 십수 년간 이어진 기부를 단체로 철회하고 있다. 심지어 사내 게시판에 취소 인증글을 올리며 다른 노조원들의 동참까지 부추기고 있다. 이보다 더 탐욕스럽고 비정한 이중성이 어디 있는가.

노조의 권리 주장도 사회적 책임과 상호 신뢰라는 보편적 가치 위에서 있을 때 비로소 정당성을 얻는 법이다. 연간 영업이익의 15%에 달하는 45조 원의 성과급은 정당하게 요구하면서, 병

마와 싸우는 아이들을 돕는 매달 몇만 원의 기부금은 야귀워 등을 돌리는 이들이 어떻게 국민을 향해 자신들의 파업을 지지해달라 말할 수 있겠는가. 나눔의 가치를 훼손하고 사적 이익에만 눈이 먼 이기주의의 끝판왕을 보는 듯하다.

이러한 노조의 폭주에 내부 구성원들조차 등을 돌리고 있다. 무리한 성과급 요구와 비정한 기부 거부 움직임에 실망한 직원들이 하루에만 1,000건이 넘는 탈퇴 신청을 하며 노조를 이탈하고 있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 무더기 탈퇴 릴레이야말로 노조의 도덕적 파산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신호다.

노조 지도부와 조합원들은 이제라도 자신들의 행동이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라는 노동운동의 본질을 얼마나 심각하게 짓밟았는지 직시해야 한다. 국민의 지탄과 내부의 외면을 받는 노조에 남는 것은 고립뿐이다. 더 이상 '사회적 책임'이라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이기주의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지 마라. 도민과 국민은 탐욕에 눈이 멀어 약자의 눈물까지 외면하는 노조의 행태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의시

봄봄봄 그리고 봄 / 김용택

꽃바람 들었답니다	바람처럼 돌아다녀요
꽃잎처럼	
가뭇위져서 걸어요	나는 새가 되어 날아요
	꽃잎이 되어
뒤꿈치를 살짝 들고	바람이 되어
꽃잎이 밟힐까 새싹이 밟힐까	
사뿐사뿐 걸어요	나는 알아요 당신께 날아가요
	나는 꽃바람 들었답니다
봄이 나를 데리고	당신이 바람 날았어요

시인 약력 : 1948년 임실 진매마을 출생. 임실 마암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시를 썼다. 교직기간 동안 아이들의 시를 모아 펴내기도 했다. 1982년 '창작과비평사'에서 펴낸 21인 신작 시집 '꺼지지 않는 햇불로'에 '심장강 1'의 8편의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1986년 '김수영문학상', 1998년 '소월시문학상'을 수상했다. 2001년 독립단편영화 '들'에 이어 2010년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에 조연으로 출연하기도 했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00022 (원근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www.jeonbuktimes.co.kr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팔백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826-6049
송천지사 010-5242-38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8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김제시, 시민 중심 문화 도시 정조준

도시의 경쟁력은 문화에서 나온다. 김제시가 문화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시민 참여형 문화 콘텐츠를 확대하며 '시민 중심 문화 도시'로의 도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역을 대표할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예술인 창작 거점 마련부터 시민이 일상에서 쉽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까지 '공간을 채우고 예술을 더하는' 문화 정책을 통해 도시 곳곳에 문화의 숨결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다.

김제시는 ▲지역 대표 복합문화공간 '김제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 ▲예술인 창작 거점 '굿만경 창작제재소' 조성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김제시 문화의 날' 운영 ▲일상 속 전시공간 '이동형 거리미술관' ▲다채로운 공연 콘텐츠를 선보이는 '김제 문화예술회관 운영' 등 주요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문화환경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문화 기반 시설 확충과 생활 속 문화 콘텐츠 확대가 이루어지며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 환경을 한층 풍요롭게 하고 있다.

김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문화예술 정책과 사업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편집자주)



문화예술커뮤니티센터 조감도



이동형 거리미술관



굿만경창작제재소 조감도

## '김제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 본격화 예술인 창작 거점 '굿만경 창작제재소' 조성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김제시 문화의 날' 운영 일상 속 전시공간 '이동형 거리미술관'

이에서 미술작품을 감상함으로써 바쁜 일상에서 삶의 여유를 느끼고 지역 예술가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며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 ◆ 시민과 함께 여는 예술의 문, 김제 문화예술회관 연간 공연 운영

문화예술의 중심, 김제 문화예술회관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거점을 넘어 시민의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린 문화 공간으로서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춘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문화 향유의 장을 열어 갈 준비를 하고 있다.

2026년 기획공연 신춘콘서트를 시작으로 서커스를 동반한 뮤지컬 이상의 나라의 엘리스: 완다랜드, 어린이 연극 사과가 콩, 다양한 계층이 즐길 수 있는 미술 소인 유희진 미술사의 더 이미지 네이션, 고민을 상담하고 공감하며 치유하는 말 자할매 쇼, 연말을 장식할 송년 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들을 통해 시민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공연예술 유통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국비 1억 4천만 원을 확보하여 ▲신뎡파전, ▲미술피리, ▲도로시의 모험 총 3건의 공연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며 전북문화관광재단의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단체 '국은에 에트'가 벽곡제를 배경으로 한 오페라 ▲쌍용: 용맹한 형제의 전설을 통해 김제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 참여형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예술 소양을 높이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이러한 다채로운 공연들을 통해 시민들에게 정서적 휴식과 에너지를 선사하는 일상 속 문화 워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시민 중심 문화 활력 도시로 비상

이렇듯 김제시는 문화 기반 구축과 시민 맞춤형 콘텐츠 사업의 시너지를 통해 문화적 소외를 해소하고 지역 예술가들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문화예술은 시민의 일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라며, "단순한 시설 건립에 그치지 않고 그 안을 채울 내실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김제시 어디서나 예술의 향기가 흐르는 '문화 활력 도시 김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은봉기 기자



있다. 향후 도시 예술인들이 거주하며 창작활동을 펼치는 거점이자 관광객들에게 목공 체험과 전시 공연 등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김제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 ◆ 찾아가는 문화예술의 향연, '김제시 문화의 날' 운영

김제시 문화의 날은 문화의 날 주간(매월 마지막 주간)에 문화 소의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18회 운영했고, 올해는 총 5회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에 개최된 김제시 문화의 날 '김제문화놀이터'는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체험 및 문화 공연과 포토존 전시 등을 통해 김제시를 방문하는 방문객과 시민들에게 추억과 즐거움을 선사했고 그 외 야외 영화상영 등 문화의 날 사업을 지역 특화 문화 브랜드로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로 운영했다.

앞으로도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곳을 방문해 문화공연 및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

시키고 지역 사회의 문화적 발전과 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 일상 속 거리에서 만나는 예술, '이동형 거리미술관' 운영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김제동헌-내아, 시민문화체육공원 등에 컨테이너 형태의 전시 공간을 설치하여 지역 작가의 예술 활동 증진을 도모하고 시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동형 거리미술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1년 시책발굴 경진대회에서 우수 시책으로 선정된 이후 2022년부터 30회 전시를 개최했으며 올해는 지난 4월을 시작으로 총 6회 운영으로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쉽게 접할 기회를 제공하여 김제시민의 문화 접근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전시 참여 작가에게 작품을 알릴 기회를 제공하고, 창작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동형 거리미술관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가까

기회를, 시민들에게는 다채로운 문화 체험의 장을 제공하는 명실상부한 복합 문화 플랫폼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 ◆ 예술인 거점 창작플랫폼, 굿만경 창작제재소 오는 7월 준공 예정

문화예술인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견인할 '굿만경 창작제재소' 조성 사업 역시 순항 중이다. 행정안전부 고향올레(GOALL) 공모사업 선정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2023년 화재로 소실된 만경제재소 부지에 16억 원을 투입해 거주 시설, 커뮤니티 전시실, 목공예 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지역 재생 프로젝트다.

지난 4월 실착공에 들어가 현재 탄탄한 기초 작업을 진행 중이며, 오는 7월 말 준공을 앞두고

### ◆ 지역 대표 복합문화공간 '김제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 본격화

김제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거점 시설로 자리매김할 '김제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는 교동 99-1번지 일원에 191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946㎡의 규모로 조성된다.

시는 철저한 예산 확보 노력과 함께 설계 경제성 검토, 지방기술심의, 원가심사 등 꼼꼼한 사전 행정절차를 거치며 재정 효율성과 시공 품질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현재는 본격적인 착공에 앞서 안전한 현장 조성을 위해 부지 정리 및 안전 펜스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1차분 착공을 시작하여 2027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에 매진할 계획이다.

완공 후에는 지역 예술가들에게 창작과 발표의